

2010.08 Vol. 217 August

문화의향기



2015년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로 즐기는 인생의 황금기,
문화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어르신문화학교 사업

인생의 황금기를 문화예술로 즐기는,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사업

어르신 동네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도 어르신문화학교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사업

어르신문화학교 수강 어르신들이 공연단을 만들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문화봉사를 펼칩니다.



어르신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사업

어르신들의 삶의 문화(생활문화, 생애문화, 경험과 지식 등)를 창조적 문화콘텐츠로 개발합니다.



어르신문화단체 사회적기업화 추진

어르신문화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Contents

2010. 08 Vol. 217 August

02	특별기고	프랑스의 장묘문화
06	한지봉 한술밥	경남 함안문화원
10	문화원을 잡아라	언제어디서나 문화예술교육 유비쿼터스 마을 만들기
16	문화원대담	과천에서 입지효문화축제 만들기
20	추어라, 봄	한국의 가면극
24		몸으로 추다, 불교무용
28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출판물의 장정(裝幀)과 집지 장정의 변천
32	인식의 전환 물 들어다보기	못과 연못
34		만이숨결, 그림책 작가가 본 순천만
40		원시의 땅 우포늪, 신이 내린 축복
46	한국의 예절	공통예절
52	문화원 특파원	하남단오축제
54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58		우리문화소식
59		원장동정



등록번호 서울라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상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od.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박호환(대신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원(주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준석(성남문화원장) | **편집협정** 문석희 | **편집 디자인** 이근희 02)332-7924 | **인쇄** 태일 세인프 02)2288-2111 | **표지 사진** 함소영 | **편집위원** 박호환(대신문화재단 사무국장),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사진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프랑스의 장묘문화

Le cimetiere du Pere la Chaise

베르 라 쉬즈 공원묘지

역사와 환경에 따라 인간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풍습이 달라 그 장묘 양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분리하며 사자死者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묘지에 대해서도 음택풍수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후손이 발복하는 뒷자리를 선택한다.
또한 묘역은 바로 생전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러나 중세부터 기독교의 지배 아래 있던 유럽인의 사고방식은 부활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하기 때문에 육신을 보존해야하므로, 장례가 교회 중심으로 행해지면서 시신屍身이 교회 뒤뜰이나 지하실 혹은 성당내부에, 영주나 귀족 등 부유층들은 성안에 가문의 묘나 납골당(실내묘소, colombarium)을 설치하여 사자들을 가까이에 두었다.

까보와 앙프, 프랑스의 묘지

프랑스 묘지의 특성을 보면 까보(Caveau)와 앙프(Enfeux) 형태로 구별된다. 앙프는 남불 마르세이유, 이태리, 스페인 등지에서 흔히 행한 것으로 지상에 작은 아파트 형식으로 설치하여 대단위로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며, '까보'는 0.5평 정도의 넓이에, 2m 50cm이상 땅을 깊게 파고 차례차례 관을 쌓아, 최고 4구까지 보관할 수 있는 일종의 지하 아파트 형식이다. 프랑스의 장묘법에는 묘지에 대한 면적을 몇 평 이하로 규정하는 항목이 없음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한 사람이 들어갈 공간에 가족 모두를 안치한다.

주거지역과 멀지 않은 곳, 도시나 성당 중심의 묘지를 수세기 동안 이용하다보니 18세기 프랑스대혁명 당시 파리근교에는 200여개가 넘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 당시 이 공간은 수용한



계를 초과하게 되고 게다가 무연고자의 묘가 많아 관리소홀로 악취를 풍기는 혐오시설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1세가 도시개조 정책을 세워 기존의 공동묘지들을 폐지하고 그곳에 공공시설을 건설하였다. 이때 200여 공동묘지에서 나온 유골들을 유족에게 인도하거나 무연고 유골들은 파리 남부에 있는 지하묘소(까타콤브, catacombe)에 안치하였다. 또한 파리성곽 외부에 공원묘지를 만들 계획으로 당시 파리 도지사인 프로쇼(Frochot)는 건축가 A. 부로니아르(Brogniart)에게 설계를 맡겨 영국식 정원풍경 양식의 묘지를 조성하였는데, 이것이



파리에서 제일 먼저 생기게 된 공원묘지의 효시가 된 빠르 라
 웨즈(1804, P. Fran de la Chaise, 루이 14세의 고해 신부의
 이름)이다. 뒤이어 몽파르나스(1824), 몽마르트르(1825) 등 대
 규모 공원묘지를 조성하였고, 그 후 파리 외각 7개의 언덕에 크
 고 작은 규모의 묘지들이 확대 설치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파리의 확장으로 외곽에 있던 이들 공원묘지들이 다
 시 파리에 편입되었다. 빠르 라 웨즈는 파리 20구에 있다.

〈묘지 심미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했을 정도로 프랑스는 공동
 묘지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두고 관리하는데 이곳 역시 정문을
 들어서면 「공동 유골장」이라 새겨진 깨끗한 화강암석판이 눈
 에 띈다.

이곳의 조형물은 여성상이 많으며, 정해진 좁은 면적에 수직으
 로 세워진 조각품들이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프랑스 정부

는 빠르 라 웨즈의 묘지건축물과 조각품 등을
 역사적 유물로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로 인정
 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녹지시설로서
 도 탁월하여 주민들의 산책로로도 이용되며,
 설문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사람들의 연평균
 성묘횟수가 대체로 10회 이상이 된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미술가, 음악
 가, 철학자, 소설가, 시인, 일반인 등 수많은 영
 혼이 잠들어있어 그곳에 가면 평소애 좋아하
 거나 존경하는 이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사실 초창기에는 이 공원묘지가 활용되지 않
 아 시당국은 '사후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라는 구호로 유명인들의 무덤을 옮기기로 결



정하였고, 1817년 몰리에르와 라퐁텐느(현재 둘은 나란히 있음)를 이장하였다. 그 후 1830년까지 묘가 급속히 늘어나 33000개에 이르게 된다. 현재는 그 면적이 100헥타르에 이르며 10만기의 분양묘소에 50만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이 공원묘지는 크고 작은 분묘단지가 97개로 구획정리되어 묘지 사이사이로 조경이 잘 가꾸어져 있으며, 까보 형태로 가로 0.8m에 세로 1.6m 높이 30cm가량의 화강암 평석이 덮여 있고, 가족이나 죽은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조각품들이 곳곳에 있어 공원의 분위기는 더욱 더 정교하고 품위가 있어 이곳은 관광명소로도 자리잡아 방문객의 수가 연간 250만 명 이상이 된다.

많은 예술인들의 무덤 앞에 서서

1960년대부터 프랑스 정부는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한부 묘지제도를 실시하여 10, 30, 50년 단위로 무덤을 임대하고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난 유골은 화장을 한다. 파리에 오면 난 오래 한 번씩 여기에 묻힌 시인이나 미술가 혹은 음악가들을 찾는다. 9월의 파리 일기가 늘 그렇듯 오늘도 예외 없이 비는 자주 흠뻑렸다. 미리 준비한 두툼한 스웨터를 입고 많은 예술인들을 만났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시인 엘뤼아르, 그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잠시 묵념을 하고 나서, 아폴리네르, 사랑보다 삶을 선택한 여자, '죽은 여인보다 잊혀진 여인이 더 불쌍하다'라고 말했던 여인, 아폴리네르로 하여금 세느강 미라보다리 위에서 울게 한 여자 마리 로랑상, 위고, 뫼세, 프루스트, 발작크, 알퐁스 도데, 짐 모리슨, 에디트 피아프, 이브 몽땅, 쇼팽, 모딜리아니, 여인들의 립스틱자국으로 뒤덮인 오스카 와일드의 묘 등등 오후 내내 여기 저기를 다녔다.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게 잠들어 있는 프랑스의 제 3 공화국 대통령 펠릭스 포레(Felix FAURE, 1841-1899)도 결국엔 3평에 잠들어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유명인사들의 묘를 일반 시민과 함께 쓰고 있는 프랑스인들의 평등 정신을 엿보게 된다.

30여년 전 처음 이곳에 와, 내가 좋아하는 시인들 묘지 앞에 꽃 한 송이씩을 놓고 우리 식으로 절은 하지 않았지만 묵념은 하였다. 그

당시 그들의 묘에는 잡풀들이 주위에 있었고 좁은 내방처럼 된 듯한 모습이였다. 그들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듯 누가 왔다 갔다는 어떤 흔적도 없어 먼 동방에서 온 흙모자의 마음을 서글프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명했던 문인 화가 등의 새로 바뀐 듯 깨끗한 대리석 묘 주위에 관광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의해 한 두 송이 꽃이 놓여 있기도 하다. 시 당국의 배려이겠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이브 몽팡, 짐 모리슨, 에디트 피아프 같은 가수의 경우, 그 묘석 위에는 항상 꽃으로 뒤덮여있어 불멸의 인기 인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들이 지은 시도 생각해 보고 그들의 노래도 흥얼거리 본다. 그렇게 묘지공원을 돌아다니다가 누군가의 장례식을 보게 되었다. 몇몇 사람이 땅을 파고 구덩이에 관을 넣고 있었다. 난 슬금슬금 다가갔다. 20세기 최대의 음유시인으로 칭송받는 조르주 브라상스(Georges Brassens)가 자기 시에 곡을 붙여 부른 「무덤 파는 사람」(Le Fossoyeur)이라는 상송이 생각난다. 5절로 된 그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보지도 알지도 못한, 선량한 주검이여 안녕! 어찌다 땅속에서 신을 보거든/ 그에게 나의 고통을 말해주오/ 마지막 삼질은 괴로웠노라고/ 난 가련한 무덤 파는 사람.' 사람이 일생 살아오는 동안 화려하거나 슬펐던 순간들이 있었을 테고, 사는 동안은 지금의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의 감정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어느 날 있을 그 때 나의 모습을 멍멍한 마음으로 엿보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납골당 조성

다시 납골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26500(가로 세로 30센티, 깊이가 50센티)칸이 있다. 카톨릭의 영향이 큰 프랑스는 매장풍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이지만 1889년 처음으로 뻘라 세즈 묘지에 화장장을 설치하였고 1961년 로마 바티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화장을 허가받아 화장장 주변에 ㄷ자 모양의 회랑식 납골당을 만들었다. 프랑스 정부는 납골당 조성으로 도시개발이나 농작지의 손실을 막고, 도시공간과 위생 및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장례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 효율적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화장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최근 15%까지 늘었다. 분골의 60%는 바다나 강, 29%는 공동묘지 안에 있

는 <추억의 정원>에, 8%는 아파트식 납골당에, 3%는 개인 납골당에 안치된다. 그곳에서 마리아 칼라스, 이사도라 덩컨, 막스 에른스트 등등을 만났다. 그 목소리, 그 춤, 그 그림, 불꽃 튀는 예술혼, 날개짓하며 퍼덕이던 푸른 영혼, 고뇌하던 젊은 날의 붉은 상처자국들, 모두 이 세상에 놔두고 이렇게 한 줌의 재로, 한 줄의 이름으로, 한 송이 석고 꽃으로 여기 한 뼨의 공간에 들어가 있다.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어느 날엔가는 지워질지도 모를 그의 이름 앞에서, 내가 그들의 작품을 보았기에 삶과 죽음의 비정함을 느끼게 된다. 잘 있으라고 또 오겠다고 어느 말로도 작별인사를 하지 못한 채 비틀비틀 뒷걸음질 쳐 그곳을 빠져 나왔다. 어질어질하여 잠시 눈을 감고 서있자니 이곳 문단은 시간이 9월부터는 6시라고 공원관리인이 나에게 와서 말하면서 묘지 정문까지 안내한다. 나오자 문이 쾅 닫힌다. 아마 내가 마지막 나오는 관광객이었나 보다. 그래서 관리인이 나를 찾아왔나 보다. 혼자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나 생각하니 등골이 송연해진다. 비맞은 닭처럼 몸을 한번 떨고 나서 묘지 정문근처에 있는 cafe fontaine(샘물다방이구나 하면서 아이러니한 이름에 혼자 피식 웃는다)로 들어갔다.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으스스한 몸 녹이며 창밖을 본다. 퇴근시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바빠 걸어간다. 그들이 남기고 가는 무심한 발자국 위로 그 자국을 없애려는 듯 후드득 후드득 비가 내린다. 그 빗줄기 타고 어스름이 다가와 스멀스멀 파리에 퍼진다.



김원욱 시인, 인천시민회장

더욱 젊어지는 함안문화원,

젊어지는 문화방법 따라가기

함안 IC에 인접해 있어

함안의 관문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함안문화원.

2009년 원사를 새로이 짓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고 있는

함안의 명물 함안문화원을 찾았다.

문화원 앞쪽으로 들어가니 함안 IC가 눈에 띈다.

좀 외진 곳이 아닌가 생각하며 입구로 들어서니

뒤쪽에는 넓은 주차장 부지와 각종 문화시설,

공원 등이 함께 모인 자리다.

넓은 잔디와 각종 시설들이 인접해 있으니

자연히 오고가는 사람들이게 홍보도 된다.

1965년 5월에 개원한 문화원으로

함안문화원은 꽤 역사가 있는 문화원이다.

자생적으로 전국적인 성장을 한 문화원은 이곳,

경남 함안에도 싹을 틔우고

열매 맺고 있었다.



각계각층의 회원 불잡기

경상남도지회장이기도 한 조훈래 함안문화원장은 문화원과 처음 인연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제가 문화원하고 인연을 맺은 건 1992년. 그 때 제가 함안 교육장이었는데 당시 함안문화원장이 특강을 요청했을 때입니다.

그 때 문화원장이 말씀하시길 문화원이 가진 기능하고 학교의 교육기능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계기로 문화원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특강을 하려고 나와 보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문화원은 그 지역 노인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지역에서 노인계층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원이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 지금 문화원의 커다란 줄기가 된 것이다.

회원을 200명을 400여명으로 확대했고 함안문화소년단

을 만들고 지역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었다. 시투리말하기대회, 실버농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지역에 다채로운 문화를 심었다.

읍면리별·직능별 이사 활용으로 회원을 가까이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문화원의 몫이지만 열매를 맺고 그 과실을 즐기는 건 회원들이다. 회원들은 예민한 화초 같아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무럭무럭 자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한다. 문화원이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지만 함안의 경우 회원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우리는 지역별로 읍면리별로 이사를 두고 또 직능별 이사를 둡니다. 읍면별 이사의 분들은 해당의 이사분들이 관리를 하고, 직능별 이사들은 각 항목에 따라 관리를 한다. 학술토론회 강연회, 탐방 등 다채로운 일을 하



좌측부터 조평래 군지 상근위원, 흥선자 과장, 조훈래 원장, 강선영 간사, 추도호 국장



“우리는 지역별로 읍면리별로 이사를 두고

또 직능별 이사를 둡니다.

읍면별 이사의 분들은

해당의 이사분들이 관리를 하고,

직능별 이사들은 각 항목에 따라 관리를 한다.

학술토론회 강연회, 탐방 등

다채로운 일을 하시게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므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사들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회원을 관리하게 된다.”

시게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므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사들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회원을 관리하게 된다.”

처음에 문화원을 옮기느라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회원이 조금 줄기도 했었다고. 그래서 식사와 차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그게 또 방법이 되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오시는 분들을 잡아둘 수 있게 되었다.

문화원의 위상과 그 앞날

“함안군수가 7월 취임하고 처음으로 문화원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하고, 뿌듯했다. 문화원의 위상을 대변하는 일이 아니겠나.”

물론 다들 문화원이나 문화원장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어려운 일도 많고 탈도 많고 험담하는 이도 많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담을 쌓지 않고 후에 보니 어렵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도 문화원의 한 가족으로 잘 지내게 되었다고.

“소위 우리 문화원은 기록의 문화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록 보존하고, 책자도 발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함안의 문화를 알고 싶으면 함안문화원으로 오면 됩니다. 함안군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안은 가야의 역사도 있지만 뚝방의 문화가 유명하다고 한다. 전국에서 가장 긴 뚝방이 함안에 있기 때문. 한강 르네상스처럼 배도 띄우고, 야외영화상영도 하는 등 관광지로서의 함안문화도 여러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과 소통하고 문화하는 함안문화원으로

총회를 선두로 하여 숨차게 달려온 함안문화원의 올해 일정도 빠듯하다.

생활한자, 한국춤, 가야금, 기타연주, 시조창, 꽃꽂이 등의 문화강좌와 어르신문화학교에 참여해 전통문화 지킴이 함안화천농악 전수팀도 양성 등이 연중 진행되고 있다.

5월, 함주공원내 열린문화마당에서 열리는 읍면대항 농악경연, 가야문화권 답사로 채워지는 '찾아가는 문화탐방' 대암이태준선생 기념사업회, 우봉안지오 의사유허비 건립추진,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은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대회, 학술토론회, 경상남도지사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 회원 문화유적답사, 올해 3회째를 맞는 함안 군민 휘호대회, 문화가족축제, 책자발간 등이 진행된다. 함안문화원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문화원은 아니다.

그러나 함안에서만은 문화의 앞선 대장으로써 위용이 당당하다. 지역에서 더 깊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조원장의 다짐이 문화원을 더 앞서 걷게 하고 더 빨리 뛰게 한다.

모두의 다짐으로 더욱 강건해지는 함안문화원이다.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센터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교육

유비쿼터스 마을 만들기



문화는 굳이 거창하게 지금이 문화의 시기네 하며 번지르르하게 말만 앞세우지 않더라고, 사회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담당하고 있다고 보며,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가꾸어진 인성과 창의성 등은 우리나라의 좋은 미래를 담보하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동네의 알콩달콩한 문화들이 모여 우리나라를한껏 생기발랄한 기운들이 샘솟게 할 것이고, 이것이 궁극에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실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바로 지방 문화.원.에 있습니다.

바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 거점 네트워크 신청에 관한 내용이 떴습니다. 대덕문화회관, 회덕문화의집, 회덕작은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덕문화원에서는 그간 간간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었고, 2009년에는 문화원, 문화회관, 문화의 집에서 각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프로그램이 떴으니 욕심이 났습니다. 나름 제가 직접 몇 년간의 문화예술교육 강사 경험과 문화원에서 근무하면서 진행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험들을 바탕으로 좋은 지역거점센터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고, 이곳 대덕문화원은 원도심과 공단 지역 그리고 도시 농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참고로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벨리는 유성구에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나 단체들이 매우 열악한 곳에 위치해 있어 더욱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준비

그래서 일단 지역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민네트워크인 해피투게더 대덕구 네트워크를 찾았습니다. 거점센터에

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트워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 문입니다. 시설, 기관, 단체, 마을, 이동센터 등 수요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이 중심이 된 공급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문화원에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대덕구네트워크와 문화원과 연결 되어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수요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하여, 연극, 음악(악기), 풍물, 미술, 영상, 민속예술 등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2010년 1월 24일이고, 총 18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속예술부분은 지역의 들말두레소리 농요를 인근의 목상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전수하고자 계획을 하고 들어간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이진순전히 문화원의 위상이 높아졌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문화재단이 대전의 5개문화원과 컨소시엄을 맺고 이 사업을 직접 신청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과는 그렇고 문화재단이 성격에 맞겠다 싶어 5개문화원이 대전문화재단을 주관 단체로 하여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준비해온 것을 생각하면 속이 아프지만 어찌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따로 신청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하는 수 없이 개별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덕문화예술포럼으로 하여 녹색체험마을인 이현동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을 그려내는(영글로 보는 우리 동네)를 신청하여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웬걸요, 대전에서 거점센터로 신청한 곳들이 모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사업설명회를 따로 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때 참석을 하여 지역거점센터는 광역시에서는 구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 한 번 내 보겠다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5개문화원에서도 그럼 대덕이 먼저 하고 차차 확산해나가자 하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준비해 오던 것을 손질하여 신청을 하고 대전에서는 대덕문화원과 대전 예총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시작

일단 선정은 되었지만 1억을 신청하였는데, 7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와 사업을 조정하면서 담당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같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측에서

생각하는 지역거점네트워크의 상과 저희가 생각하였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과 수요자를 연결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개별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고 이렇게 하면 지역거점센터가 개별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진흥원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통합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조직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통합프로그램? 말로는 들어보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인터넷을 검색하고 주변의 전문가들과도 상의를 해 보았지만 뽕족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혹시 통합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온 사례를 소개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쪽에서도 적절한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전체를 관통하는 그 어떤 통합적인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생각이 미치자, '그래, 지역의 향토문화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미술이면 미술, 연극이면 연극, 미디어면 미디어, 모든 프로그램에 내가 사는 지역의 향토문화가 색칠해져 진행된다면, 프로그램이 통합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서 강사들이 모여 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계속이어 나가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인

통합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에 앞서 문화예술강사와 참여기관의 담당자가 모두 이 사업의 그림들을 함께 그려보고자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밭문화마당 대표이며 본 프로그램의 컨설턴트이자 전)유성문화원 사무국장으로 더 친근한 이춘아 선생님이 '지역사회문화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왜 네트워킹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공동체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한밭레츠의 대회협력 실장이자,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조직지원부장이며,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트레이너인 김성훈 선생이, '지역문화네트워크와 지역화폐'를 주제로 지역화폐에 관련한 동영상 시청, 모둠을 나누어 품앗이 놀이를 하며, 문화를 통해 서로 줄 수 있는 것과 받고 싶은 것을 공유하면서 나름의 문화화폐로 어떤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이는 지금 성남문화재단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새롭고 흥미로운

네트워크와 품앗이에 관한 놀이가 끝나고, 지금도 너무 좋았다 말씀하시는 친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참여강사와 수혜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김호연재 시길 그리기의 참여강사이자, 워크숍을 하고 있는 하늘강 아뜰리에 주인이신 신정숙 선생님 '흠으로 만나다. 나와 우리가 만나는 미술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흠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심히 몰두하여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질 지역거점센터인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교육 유비쿼터스마을의 실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1. 먼저 연극 프로그램입니다.

새싹지역아동센터 아동들 39명을 대상으로, 마당극단 '좋다'의 단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극단에서는 어린이 마당극 '생각놀이'를 제안하였습니다. 연극을 소재로 노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도 그만의 가치가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향토 문화를 바탕에 깔고 진행되는 것이라 지역의 이야기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극단 '좋다'에서 대덕문화회관의 지원사업으로 17세기 조성여성사의 선구적지성인 김호연재를 소재로 연극을 제작 중에 있어 그 부분을 아동들이 공연 할 수 있게 정리하고 연습하여 무대에 올리자 하는 것에 동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은 연극의 기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새싹지역아동센터를 방문을 하였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연극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는 애로가 많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민들레의료생활 사랑방이나 한밭레츠의 공간을 이용하고자 상의를 하러 가던 중, 법1동 동사무소가 있어 사무장을 만나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동사무소에 공간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동사무소 2층 공간에 마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듯한 마루바닥에 음향 시설까지 갖춘 좋은 공간이 있어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



어 그곳을 연습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 연극 반은 대덕문화원과 지역아동센터, 동사무소 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연습과 공연을 실시하여, 지역의 아동연극 중심으로 키워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2. 미술프로그램입니다.

미술프로그램은 사인판화공방의 이상준 선생 외 2분이 보조강사로 참여하셔서 진행중입니다. 참여단체와 인원은 대전사회복지관 아동 30명,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아동 30명, 만두레지역아동센터 아동 20명입니다. 먼저 대전사회복지관이 위치한 비래동의 향토문화와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범동의 향토문화, 만두레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오정동의 향토문화에 대해 미술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앞서 대전문화연대 지역문화위원이자 대전광역시 해설사로 활동 중인 박은숙 선생으로부터 3회차의 마을 알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알기 수업에서 주제를 얻어, 비래동에는 비상하는 비상체를 대전사회복지관 정면에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범동에는 지역 이름의 유래가 된 범(호랑이)와, 범천이라는 냇물 즉 물을 소재로 범1동 사무소 벽에 작업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오정동에는 크게는 추상적인 디자인에 아이들이 마을이야기를 소재로 작업한 내용을 넣어 아이들 놀이터와 붙어 있는 석산노인정 외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술프로그램의 재료로 쓰일 사방 20센티미터의 나무판 3,400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실버문화학교 지원을 받아 꾸러진 장동공방 어르신들이 제작하셨습니다. 올해 이렇게 진행하고 이 미술프로그램을 지역 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의미 있는 내용으로 가꾸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3. 다음은 농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연구소력復들이 들어서 상상이 안가는 목상동에 몇 년 전만 해도 있었던 들말두레놀이를 그곳에 있는 목상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의 도움으로 참여 학생들이 많

았으나, 갈수록 참여하는 학생들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들말두레소리로 무형문화재를 받으신 고석근 어르신은 소리는 잘 하시지만, 교육에 대한 경험이 주로 성인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함께 활동하는 회원 두 분이 보조강사로 도와서 하고 있으나, 이 분들 역시 전통적인 전수적인 수업방법 이외에는 접근이 어려워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듯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시간을 갖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를 키우는 방향이 옳겠다는 생각으로, 보조강사들에게 교육프로그램안을 만들게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참석을 꺼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목상초등학교에서 들말두레소리 전수관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 거리라든지 자동차 길을 건너야 하는 등의 요소들도 큰 이유가 됩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는 있지만, 일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애들이 나타나고 그런 장애들을 적절하게 정리해 가면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해서 익숙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만, 꼭해야만 할 프로그램들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동네의 옛 모습들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마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꾸고 농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정착될 때까지 함께 가꾸어 보고자 합니다.

4. 지역문화를 주제로 한 '김호연재 시길 그리기' 입니다.

조선후기 남존여비가 가장 극에 이르렀던 그 때, 당당히 세상을 헤쳐 나갔던 여류시인 김호연재의 삶 중에 많은 부분을 찾아 했던 시상을 떠올리며 걸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김호연재 생가부터 계족산 비래사 앞에 있는 옥류각의 구간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참여자는 대덕문화해설사, 대덕문화 스토리텔러 등 그간 지역의



향토문화 공부를 해왔던 분들로, 김호연재 전문가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문희순 교수님으로부터 김호연재의 삶과 시에 대한 공부를 하고, 대덕구에 살고 있는 설치미술 전문가인 신성숙 선생님과 함께 그 어떤 조형적인 것들을 만들어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 계속산을 찾는 많은 분들께 멀지 않은 과거에 이 지역에 당당하게 살다간 여성이 있었음을 알리고, 여성문화와 관련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5.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미디어 프로그램으로, '영상으로 쓰는 가족사' 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진행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폭을 넓히고자 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요청되어, 가족과 집안, 가문 등에 대한 개념들이 차츰 약화되고 있는 이 때 가족이 함께 우리 가족에 대한 영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족사에 대한 CD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참여가족을 모집하려고 하니 학생과 부모들이 시간이 맞지를 않고, 30강이라는 짧은 지 않은 기간을 계속 참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신청하는 가족이 너무 적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찍는 '우리 마을의 문화재 이야기' 를 진행하고자, 대화·오정중학교 교사와 학생들과 이야기를 마친 상태고, 여름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껏 대덕문화원은 개별 프로그램에 관한 한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의 기관·단체들과의 네트워크는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토양과 잘 어우러지는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면에서도 지역의 문화가 주제가 된 개별 혹은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험적 적용을 통해 이 지역의 기반과 주민 요구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리라 봅니다. 문화는 굳이 거창하게 지금이 문화의 시기 네 하며 번지르르하게 말만 앞세우지 않더라도, 사회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며,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가꾸어진 인성과 창의성 등은 우리나라의 좋은 미래를 담보하는 것들 이라 생각합니다.

동네의 알콩달콩한 문화들이 모여 우리나라를 한껏 생기 발랄한 기운들이 샘솟게 할 것이고, 이것이 궁극에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실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바로 지방 문화.원.에 있습니다.

임형웅 대덕문화원 사무국장

과천에서 입지효문화축제 만들기

지역문화연계, 그 가능성에 대하여



일 시 | 7월 13일(화) 오후 5시30분
장 소 | 과천문화원 예술센터 2층 회의실
참석자 | 과천사진작가협회감사 조용철

한외국악예술단장 오은명
 과천문인협회 지부장 이경은
 여창가곡 변진심
 과천뉴스 조일환
 (위의 사진 좌측부터 참석자를 표기하였음)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에서 문화원이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위 '문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원의 긍지이자 힘일 것이다. 지역에서 문화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지역내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앞으로 지방문화원 중 지역 교류가 활발한 곳을 찾아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얼마 전 입지효문화축제(이하 입지효)를 성공리에 개최한 과천지역을 찾았다. 더운 여름에 비기는 열정의 대화를 쫓아가 봤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입지효문화축제, 그 사소한 시작

한외국악예술단 오은명 지역마다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브랜드가 있다. 이경은 과천문인협회 지부장과 둘이 만나면 과천만의 지역 독창성을 살리는 아이템이 무엇일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과천의 효자 최사립을 가지고 문화브랜드를 만들자고 했다.

작년 1월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문화원장님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상의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 백일장도 해보자, 그림도 해보자, 사진도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지게 되었다.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이 커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브랜드로 아이템을 개발하는 일로 진행이 되었겠다.

재미있는 아이템이 많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제

시받았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다.

과천사진작가협회 감사 조용철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좋고 보람있었다. 사진은 어떤 의미에서 말보다 의미전달의 효과가 크다. 학생들을 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작년에 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 공모를 했는데 출품 수도 꽤 되었다. 미력하나마 참여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다.

이 행사를 통해 과천의 사진 부문의 역량확대가 있었겠다.
과천사진작가협회 조용철 그렇다. 이렇게 전시를 하면 일반 시민 분이 와서 보고 반응이 있고 관심을 주는 편이다. 우리가 시작하는 얼마 안 됐지만 이 행사로 인해 호응이 더욱 좋았다.

인상적인 것들이 많았다. 그 중에도 당시 한시를 시조창에 맞게 읊으시더라. 굉장히 새롭게 들렸다. 처음 보기도 했다. 그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여창가곡 변진심 과천문화원에서 시조강좌를 맡고 있고 국악 방송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국악이 좋아요,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5월은 효에 관계되는 달이다. 마침 입지효에 관계된 한시를 하나 받았는데 이걸 시조창에 붙여봐야겠다, 딱 떠오르더라. 노래에 붙여 방송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최사립은 실존인물인데다가 역사적인 기록도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었다.
방송에서의 반응도 좋았지만 그 이후 현장에서 각계각층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훈훈했다.

학생들이 바라보는 효, 그리고 효담기자단 활동
입지효를 떠나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오히려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셨던 듯하다. 각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을까.

과천뉴스 조일환 자료 받아서 취재하고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 있었고 이색적으로 중고생들로 구성된 '효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에서의 효 이야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신문으로 만들어서 낼 계획이다. 상반기에 가장 큰 부분이 입지효다. 각 축제장에 방문을 했고 직접 현장 취재를 했다. 아이들이 어떤 눈으로 보았는지 작업이 진행될 거다.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이 전해주고 싶은 효의 개념이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 전해 받은, 이 아이들이 보는 효가 더 세로울 수 있다. 아이들에게 해석되는 효는 무엇이나.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신문을 만들려고 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단체다.

효담기자단이 당일에 활발히 활동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어떻게 구성되었던 건가.

과천뉴스 조일환 문화원의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구성이 되었고, 저는 지역 신문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자단을 이끌어줄 수 있었다.
효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전해주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가꾸어 나가야 할 효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유도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한다.
편집회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다니면서 본인의 생각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말이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

과천뉴스 조일환 효라는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다. 이걸로 취재를 한다는 게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다.

다채로운 참여를 통해서 입지효가 하나로 서게 된다.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재정이지 않겠나. 따로 받은 기금 없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한미국악예술단 오은명 이런 일도 있었다. 강찬기 노인회 회장님이 노인정에서 30여개의 돼지저금통을 모아 주시기도 하셨다.

과천문인협회 지부장 이경은 참여한 문화단체들이 분야마다 인적자원을 내놓은 셈이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만들었다. 보름 만에 책자를 냈다. 짧은 시간 안에 어렵게 냈다. 우리가 무슨 기금이 있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차비 한 번 받은 적도 없다. 본인의 재능을 다 내놓은 셈이다.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설비나 인력비용 등을 다 대체하신 셈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비용을 이미 제공하고 계신 셈이다.

과천문인협회 지부장 이경은 그렇다. 효문화센터가 구성되고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제1회와는 달리 제2회는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여기 모인 분들도 단체의 장들이신데 어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개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개개인마다 힘든 상황이 있으실 거 같다. 괜히 하지 않으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

여창가곡 변진심 여기에 근무하는 이상은 늘 나를 활용하게끔 오히려 부탁드리는 편이다. 공연 후 페이지 같은 걸 생각하지 마시라고 한다. 그 마음을 안다.

다른 걸로 도움 드릴 건 없고 내가 공연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고자 한다. 그런데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한다.(웃음) 앞으로는 많은 기금이 조성되지 않겠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마음으로 가는 것 하고 단체의 대표로써 실제적인 비용부분이 다를 거다.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천사진작가협회 감사 조용철 욕심이야 많다. 사진협회에서 하는 300여개의 전국규모의 사진대회가 있다. 우리도 예산만 좀더 확보된다면 전국규모로 해보고 싶은 계획이다. ‘효’라는 주제로 이렇게 공모를 하는 데가 전국에 없다.

한외국악예술단장 오은명 그렇다. 이야기거리 중에서도 효가 주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따분할 수 있는 주제기도 하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에 이르러 효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전통적인 효의 의식을 강요할 때가 아니며,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단체들간의 조정이나 협의 요청 부분은 오단장님이 맡아 하시는 걸로 안다. 1, 2회의 차이가 있다.

‘세대공감 사랑과 효’ 두 번째 축제의 장 ‘서울랜드’

한외국악예술단 오은명 규모면에서 일단 배는 늘어났다. 많은 단체가 이렇게 나서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과천의 강용욱예총회장님이 가시다. 효를 주제로 쓴 한시에 직접 작곡을 하고 음반을 내주시기도 하셨다. 작년 같은 경우는 최사립 효자정문에서 했는데 올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서울랜드에서 열렸다.

처음 서울랜드의 반응이 ‘아 그 경로잔치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세요?’ 하고 묻더라. 어르신들 모시고 잔치하는 줄로 알더라. 우리가 가진 개념은 ‘세대 공감 효’다.

대중적이고 젊은 문화를 하는 거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애썼다. 당일 서울랜드 관객까지 만여명 정도 참여했을 거라고 본다.

백일장은 천여명 정도의 학생들도 참여하고 ‘효 애니메이션, 사랑의 영상편지, 웹툰, 사랑과 감사의 매듭편지, 컷! 효 자효너 되어보기, 탈로 꾸며보는 가족 이야기’ 등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어떤 것보다도 문화예술하는 지역의 분들이 함께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회원과 위원들이 나서는 기금조성

제일 힘든 건 물론 예산이겠다. 어디 이동해도 이분들이 다 내게 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않나.

기꺼워서 하고 계시지만 단체장으로써 회원들 챙기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꽤 많은 힘을 들이실 것 같다. 이게 지역에 좋은 일이지만 봉사라서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천문인협회 지부장 이경은 저희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백일장을 열고 있는데 이 자리가 서로 교감하는 통로가 된다고 본다. 차후에 기금조성도 되고 후원도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지킬 것은 이런 정신이지 않나. 단체마다 어려움은 있을 거다.

시작할 때 뜻이 좋았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면 좋지 않겠나. 어려움이 있지만 투덜대면서도 신나게 하고 있다. 과천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동양의 중심이 되고 세계로 퍼질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꿈꿨던 일이 바로 이런 거다.

굉장히 우주적인 계획이다. (웃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셔서 이야기 나누시나.

과천문인협회 지부장 이경은 객담이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치킨 한 마리 맥주 한 잔 시켜서 이야기하고 그러길 몇 달 했다.

밥도 잘 못 먹었다. 두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 시켜서 먹었다.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다.

한외국악예술단 오은명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라 본다. 과천문화원 원장님과 과천향교의 정명근 전교담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사랑해孝 후원회' 을 만들어서 CMS자동이체로 후원금을 받고 있다. 현재 100명 정도인데 목표는 만 명이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가입했다.

이런 자동이체를 통해서는 단체장들 뿐만 아니라 과천의 시민까지 참여하는 행사가 된다.

자부심이 더욱 있으시겠다. 효라는 하나의 주제를 내세우시는 게 더욱 확실해야겠다.

과천문인협회 지부장 이경은 청소년들이 효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정말 잘 모르는 거 같다. 과거의 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

서른 개 정도로 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묶어서 책자로 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면 접근이 조금 용이해질 거다.

여창가곡 변진심 그렇다. 우리가 어떤 것이 효인지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한다. 말로, 노래로 인성을 키워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싶다. 그게 소리의 힘이다.

과천뉴스 조일환 청소년 뿐 아니라 청년층에게 제시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를 전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해석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과천사진작가협회 감사 조용철 효라는 단어가 어렵게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자유롭게 느낄 수 있게 쉽게 풀어줘야 한다.

말씀 감사하다. 치킨에 맥주 없이도 지난 이야기 풀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를 느낀다.

아까 이경은 지부장님의 말씀처럼 과천의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 국제적으로 나아가 우주적으로 큰 영향 미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뵈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과천문화원에서 덧붙임

입지효는 과천문화원, 과천향교, 선바위미술관, 한외국악예술단,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의 대화에서 시작된 지역축제이다. 문화원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으셨다. 행사 당일 충주문화원의 전찬덕 원장님의 휘호쓰기와 팸플릿에서 김중 원장님의 미술작품을 넣기도 했다.

지역 내 연계 뿐 아니라 문화원간의 교류도 된 셈이다.

효의 고장, 용인 이종민 원장님, 진천 남명수 원장님과도 연결이 되더라. 원장님들께 얘기했더니 좋아하셔서 또 함께 하셨다. 성주의 배춘석 원장님, 산청의 권영달 전원장님께 한시를 부탁하기도 했다. 우리 문화원이 중심이라기보다, 이분들이, 그리고 더 많은 지방문화원의 힘이 이 축제를 이끌어 가실 거다. 작년에 효 관련 학술회의 때 강지원 변호사님과 교수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다.

또 다행히 과천시에서도 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공약을 하셨다. 기금조성도 한번에 안 되겠지만 차차 나아질 거라 본다.

오늘 모인 분들 외에도 과천의 제2회 입지효문화제에는 Tbroad ABC방송, 서울랜드, 선바위미술관, 이문화, 선백회, 경기소리보존회, 과천민예총, 과천예원, 대한노인회과전지부 등 많은 단체와 회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해주셨다.

(주)세왕섬유, (주)경일케미칼과 기업에서도 효문화운동의 뜻을 같이하여 많은 후원을 해주셨다.

문의

전화 | 02) 503-2022

www.hyo-culture.kr

CMS | 농협 317-0001-8532-31

한국의 가면극

1. 「봉사도」 제7쪽 모화관에서 행해진 중국 사신 영접행사의 연희 장면.
2. 「봉사도」 제7쪽 모화관에서 행해진 중국 사신 영접행사의 산봉(예산대)
3. 봉산탈춤의 양반 가면들
4. 통영요광대의 양반 가면들
5. 1920년대 양주별산대놀이의 취발이
6. 1996년 봉산탈춤의 취발이



3



巽者離戲導前未著鼓屏中響
 似雷忽到馬頭還望立一人舞
 踏笑賴開
 行時記戲遊一人作
 拜編成如人笑拾
 克敦

본산대놀이 세통과 마을굿 계통의 가면극

한국의 가면극은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과 '마을굿 계통 가면극'의 두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본산대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근교의 가면극은 애오개(아현), 사직골, 노량진, 녹번(구과발) 등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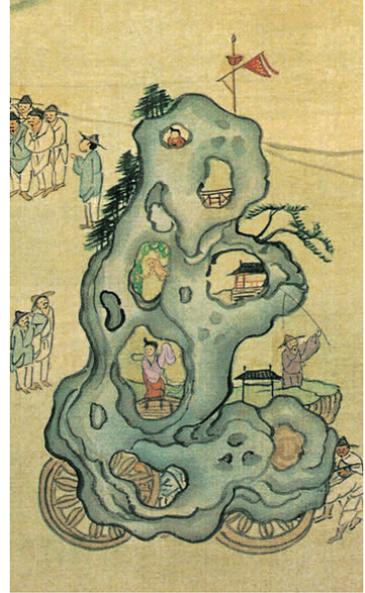
본산대놀이의 영향 아래 서울과 경기도의 별산대놀이(송파산대놀이·양주별산대놀이), 황해도의 해서탈춤(봉산탈춤·강령탈춤·은율탈춤), 경남의 야류(수영야류·동래야류)와 옹광대(통영옹광대·고성옹광대·가산옹광대), 남사당패의 덧배기 등이 생겨났다. 마을굿 계통 가면극은 마을굿에서 유래해 발전해 온 토착적, 자생적 가면극들을 말한다.

즉 하회별신굿탈놀이, 강릉관노가면극 등의 가면극이 여기에 속한다. 산대놀이는 한자말 산대회(山臺戲)에서 유래했는데, 산대회는 중국 사신 환영행사에서 설치했던 산대라는 무대구조물 앞에서 놀았던 연희들을 말한다. 산대회를 놀았던 연희자들 중에서 가면극을 만들어내어 산대놀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마침 최근에 중국 사신 영접행사의 연희 장면을 전해 주는, 아극돈(阿克敦: 1685~1756)의 '봉사도(奉使圖)'(요녕민족출판사, 1999)가 발견되었다.

아극돈은 1717년~1725년 사이에 4차례나 조선에 사신으로 왔었는데, 영조 1년(1725)에 조선에 관한 풍물과 자신에 대한 영접행사를 묘사한 20폭짜리 화첩을 완성했다. 이 중 제7폭은 모화관(慕華館) 마당에서 사신을 위해 공연한 연희들을 묘사하고 있다. 객사 바로 앞에서는 한 연희자가 대접돌리기를 하고 있다. 마당 가운데서는 두 명의 연희자가 땅재주인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고, 이들 양 옆에서는 각각 두 명의 연희자가 탈춤을 추고 있다. 마당의 왼쪽에서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 연희들이 바로 산대회인 것이다.(도판 1)

마당의 오른쪽에는 산거(山車)·윤거(輪車)·예산대(曳山臺)·예산봉(曳山棚)·헌가산대(軒架山臺)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던 소규모의 산대가 보인다. 산대 위에는 낚시질하는 신선(神仙) 인형, 춤을 추는 선녀(仙女) 인형, 원숭이 인형, 붉은 옷을 입은 인형, 그리고 나무들과 누대도 설치되어 있다.(도판 2)

한편 강이천(姜彝天, 1769~1801)의 한시 <남성관희자(南城觀戲子)>는 강이천이 열 살 때인 1778년 남대문 밖에서 인형극과 가면극을 보고, 11년 후인 1789년에 지은 시이다. 이 시는 애오



2

개(아현)의 본산대놀이를 구경하고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좌과장, 팔선녀과장, 노장과장, 양반과장(샌님·포도부장과장), 영감·할미과장을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과 등장인물들이 오늘날의 양주별산대놀이나 봉산탈춤과 대부분 일치한다.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인 별산대놀이, 해서탈춤, 야류와 옹광대 등은 각 과장의 구성과 연희 내용, 등장인물, 대사의 형식, 연극적 형식, 가면의 유형 등을 살펴볼 때, 동일 계통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별산대놀이·해서탈춤·야류·옹광대는 모두 할미과장·양반과장·과계승과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둘째, 별산대놀이·해서탈춤·야류·옹광대의 등장인물들은 양반·샌님·영감·할미·상좌·노장·먹중(목중) 등 공통적으로 신분이나 계층과 부류를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다.

양반의 하인은 모두 말뚝이다. 별산대놀이와 해서탈춤에서는 소무릎 사이에 두고 노장과 대결하는 술 취한 증은 모두 취발이라는 이름을 공통적으로



4

갖고 있다. 셋째,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의 첫과장에는 상좌춤·오방신장무·사지춤처럼 악귀를 쫓는 벽사적인 의식무가 있다. 넷째, 양반과장에는 반드시 말뚝이가 양반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내용의 '말뚝이 노정기(路程記)'가 있다. 그리고 말뚝이는 양반들에게 시중을 들고 복종하는 체하면서 실제로는 양반의 약점을 폭로하고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며, 양반들의 가면은 불구자의 모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도판 3-4) 다섯째, 별산대놀이와 해서탈춤에서는 과거승과장인 노장과장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등장인물도 많으며, 연희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명칭도 노장·떡중(목중)·소무·취발이·신장수·원승이 등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여섯째, 할미과장은 영감과 할미가 젊은 첩 때문에 싸우는 내용으로, 할미는 대부분 무당으로 나타난다. 할미의 죽음 후에는 무당굿을 하거나 상여를 내가며 상여소리를 부른다. 일곱째, 별산대놀이·해서탈춤·야류·오광대의 가면 가운데는 여러 가면극에서 공통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취발이가면의 경우는 현재 모든 별산대놀이와 해서탈춤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1929년 수집된 양주별산대놀이가면, 일제시대에 수집된 퇴계원산대놀이가면 등의 취발이가면이 모두 공통된 모습을 갖고 있다.

즉 얼굴 바탕은 붉은 색이고, 이마에 여러 개의 주름이 강하게 잡혀 있으며, 가면의 이마 윗부분에서부터 한 줄기의 긴 머리 카락이 이마를 타고 내려와 늘어져 있다. 서울·경기와 황해도라는 지역적 차이와 1920년대와 2000년대라는 시간적 차이에

도 불구하고, 취발이가면이 공통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취발이가면이 일정한 유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입증한다.(도판 5-6)

이외에 노장가면, 할미가면, 영감가면, 샌님가면, 종가집도령가면, 상좌가면, 소매가면, 첩가면 등도 취발이가면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인물 유형을 보여 준다.

조선 후기에 서울의 시정에서는 성균관 소속의 노비인 반인들에 의해 본산대놀이가 공연되고 있었다. 특히 애오개와 사직골의 본산대패는 지방순회공연을 자주 다닌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각 지방의 가면극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남사당패, 대광대패 등의 유랑예인집단은 각 지방을 떠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연희를 공연했는데, 흥행을 위해 본산대패의 가면극을 그들의 공연 종목 가운데 하나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있는 곳은 흥행을 위한 공연장소로 적합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놀이패를 이런 곳에 불러다 공연시켰



5



6

7



을 것이다. 마침 박제가(朴齊家: 1750~1805)의 <성시전도응령(城市全圖應令)>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를 한가로히 지나가노라니
 忽若閒行過康莊
 홀연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들리는 듯.
 如聞嘖嘖相汝爾
 사고팔기 끝나 연희 펼치기를 청하니
 賣買既訖請設戲
 배우들의 복색이 놀랍고도 괴이하네.
 伶優之服駭且詭
 우리나라 솟대타기 천하에 으뜸이라
 東國撞竿天下無
 줄을 걸기도 하고 공중에 거꾸로 매달린 것이 거미와 같네.
 步繩倒空繩如口
 또다시 인형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別有傀儡登場手
 칙사가 동쪽으로 왔다 하며 손뼉을 한 번 치네.
 勅使東來掌一抵
 조그만 원숭이 참으로 아녀자를 놀래켜
 小猴真堪嚇婦孺
 제 뜻을 채워 주면 예쁘게 절하고 무릎 꿇네.
 受人意旨工拜跪

(《정유집(貞莚集)》 시집(詩集) 3권)

이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제가가 한양의 모습을 그린 <성시전도>라는 그림을 보고 임금의 명(命)에 의해 지은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마치 자기가 지금 서울 시정에 나가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사고과는 장사가 끝난 다음에 그 곳에서 배우들이 놀랍고도 괴이한 복색을 하고, 솟대타기·줄타기·인형극·원숭이 재주 부리기 등의 연희를 펼치고 있는 점이다. “사고팔기 끝나 연희 펼치기를 청하니”라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때, 놀이패가 상인들의 상업 활동과 연합하여 흥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보고 이와 같이 앞 뒤 문맥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이런 모습을 자주 봤었기 때문일 것이다.(도판 7)

도판 7. <성시전도>의 일부인데, 그림의 중앙에 원숭이 두 마리가 높은 장대에 올라가서 재주를 부리고 있다.

조선 후기의 성시전도는 여러 개가 전하는데, 박제가의 <성시전도 응령>은 바로 이런 그림을 보고 읊은 시이다.



전경욱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

춤, 연극, 메

몸으로 추다

본골무용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등재되어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세계인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영산재는 악, 가, 무로 구성 되어

3일 낮과 밤에 걸쳐

진행되어지는 장엄한 의식이다.

이 가운데 무용은 몸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작법무와 선(禪)적인 내용을 함축하여

손동작으로 표현 된

수인무(선무용(禪舞踊))를 들 수 있다.



불교무용의 의미와 역사

불교무용은 불교음악과 더불어 불교 의식 진행시 스님들에 의해 진행되며, 불교무용을 통틀어 작법무(作法舞), 또는 승무(僧舞)라고 한다. 이러한 불교무용은 재(齋) 진행시 불교음악 범패를 전문적으로 배운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무용은 몸, 입, 생각을 통하여 삼업(三業)의 이치를 되새기는 한편,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몸짓이기도 하다. 삼업(三業)이란 첫째 몸동작을 통한 신업(身業)공양, 둘째 입으로 경전 내용을 암송하거나 염불로 하는 구업(口業)공양, 셋째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의업(意業)공양이며, 무용은 이러한 삼업(三業)을 통해 일체중생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르침인 것이다.

의식무용의 전래는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불교 발생, 기원후 1세기 무렵 중국으로 육로를 통한 삼국 전래, 1세기 가야불교의 해상전래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육로를 통한 전래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신라 법흥왕 14년(527)에는 불교가 공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음악과 무용이 함께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 불교무용에 관한 기록은 찾기 어렵고 다만 범패의 기록만이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예술과 더불어 백고좌도량(百高座道場), 재회(齋會) 등 많은 종류의 법회(法會)의식을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나 불교무용에 관한 문헌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는 승유억불 정책 가운데서도 의식과 무용은 매우 발전되어 전개되었다. 이러한 것은 16세기 이후 사찰에 걸려있는

감로탱화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외 불교 의식무의 역사와 유래는 입과 입으로 통해 전해오는 구전전설(口傳傳說)과 불교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영산회상 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법(說法)할 때 천사색(天四色)의 채화(彩花)를 내리니 가섭이 알아차리고 빙긋이 웃으며 춤을 춘 것을 승려들이 모방했다는 설"로, 가섭이 춤을 춘 것이 서술되어 있고 그 의미는 많은 경전에서 무용에 대해 나타나 있다.

한국에서의 범패와 및 불교 의식무에 대한 기록으로는, 6C초에 남중국 오(吳)나라의 기악무(伎樂舞)를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배워 일본에 건너가 상류층의 귀족 자제들에게 전했다는 기록이 있다. "기악무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한 가무의 일종으로 마임(mime)과 유사한 가면 묵희(默戲)이며, 희극(笑劇)적 요소를 지닌

우리는 종종 기도 할 때
양 손을 합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는 마치 연꽃 봉우리를 연상 하듯 불가에서는
연화지 합장이라 한다.
‘일체 모든 이들은 깨달음의 성품을 지니고 있고
한 송이 연꽃을 가지고 있다고 하듯’
이 또 한 수인무용의 한 표현이며
이를 선무라 한다.



것이다. 기악무는 불교음악 즉 범음성(梵音聲)이 어우러진 춤은 아니었지만 부처님께 공양(供養)한다는 의미에서 당시 고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현재 전승되는 작법무는 바라춤 7종, 나비춤 18종, 법고무 1종, 타주무 1종 등 27종류의 무(舞)가 있다. 재 진행시 작법무인 바라춤, 나비춤 반주형태는 태징, 북, 호적, 육각, 범패 호소리 반주로 진행 되며, 바라춤의 형태는 동적(動的) 남성적 춤이라면 나비춤은 정적(靜的) 여성적이 춤이라 할수 있다.

법고춤 반주형태는 태징, 북, 호적 육각이 어우러진 정중동(靜重動) 춤형식으로 진행되며. 타주춤은 식당작법시 공양 계송 사이에서 당좌의 광쇠 반주와 평엽불 소리에 춤은 정중동(靜重動)으로 진행된다.

의례진행에 있어 의례송의 범패는 소리는 일체대중에게 들려주는 청각적 깨달음의 법문이라면 작법무는 시각과 청각을 통한 깨달음의 몸짓이다.

수인무(선무용)의 의미

우리는 종종 기도 할 때 양 손을 합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는 마치 연꽃 봉우리를 연상 하듯 불가에서는 연화지 합장이라 한다. ‘일체 모든 이들은 깨달음의 성품을 지니고 있고 한 송이 연꽃을 가지고 있다고 하듯’ 이또한 수인무용의 한 표현이며 이를 선무라 한다.

선(禪)이란 산스크리트어의 ‘dhyana(드하나)’를 음역한 것으로, 마음을 통일하여 잡념을 일으키지 않

는 것이며, 수행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참모습에 돌아가는 것이다. 선(禪)은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본성(本性)을 본다고 하여 견성(見性)이라고 한다. 즉 부처님이 가섭에게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시며 자신의 심오한 깨우침을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알려주었듯, 선(禪)은 구제자와 피구제자가 있을 수 없다.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신앙이나 귀의를 강조하는 사상이 아니다.

궁극적인 선(禪)은 수행을 통한 깨달음, 진정으로 깨우친 자, 불타(佛陀)와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또 선의 궁극적인 화두는 진실한 자아추구에 있으므로 어떠한 격식, 형식, 표현을 중요시하지 않게 한다. 선이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서 전주(專注)해서 자세히 사유(思惟)하는 것을 말하고 정(定)과 혜(慧)가 균등(均等)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의 화두, 몸동작, 손동작을 통해 문자나 언어를 초월하여서 깨닫는 것을 일러 심인(心印)이라 한다. 이러한 몸짓들은 각종 불화(佛畵)나 벽화의 무용 그림을 통해 불보살의 수인(手印: 손 모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무(禪舞)란 불보살의 깨달음을 표방한 수행무(修行舞)를 일컫는다. 무용(禪舞踊)의 기본적 춤사위는 밀교의 기본적 수인(手印)을 바탕으로 안무되기도 하고, 혹은 기본 틀을 벗어나 창작되기도 한다.

음악이 음성공양을 통해 일체중생에게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선무는 무언(無言)의 동작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불보살의 참다운 가르침을 표현한 무용의 한 형태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인무용은 중국 둔황 석굴이나 한국불화에서 불보살, 명왕 등의 깨우침의 내용을 기물(器物)이나 손가락으로 나타낸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또는 수행자가 그것을 그리거나 또는 손으로 맺음을 찾아볼 수 있다.

수인은 무상(無相印)과 유상인(有相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상인은 색채(色彩), 형상(形狀), 양상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무상인은 인(印)의 참뜻을 체득하면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손, 발, 몸 등 일체(一體)의 모든 것이 인(印)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외 불, 보살, 명왕이 손에 같이나 지팡이등 지물(持物)로 나타내는 것이 결인(口印), 수인(手印)이라 한다.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우리 무형문화재에서



진행되는 수행의 춤을 통해 역사와 의미를 살피었다.

불교에서는 일체 모든 행동을 깨달음의 몸짓 즉 무용으로 시간, 공간을 초월 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무대이며, 수행의 장소로 우리 모두 무용가인 것이다.

전생에 내가 어떤 몸짓으로

춤을 추었는지!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

미래의 내 모습 ?

현재 내가 추고 있는 춤이

미래의 내 모습인 것이다.

21세기 현대인은

어떤 춤을 추고 있는지...

내 자신 남을 위해 무엇을 베풀며

어떻게 춤을 추어야 할지...

의식무용의 몸짓을 통해

화두를 던져 봅니다.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출판물의 장정(裝幀)과 잡지 장정의 변천

Book

책과 예술의 만남 북아트

대~한민국~ 짹짹 짹짹~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며 열광적으로 우리 태극전사를 응원하였으나 남미 축구의 두터운 벽을 넘지 못하고 원정 첫 16강 달성으로 만족해야 했다. 언제부터인가 세계축구는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운 남미축구와 힘과 조직력이 특징인 유럽축구의 양대산맥으로 나누어져 자웅을 겨루고 있다.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 월드컵 조별 예선전에서 탈락하여 이번을 일으킨 프랑스는 1998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 프랑스는 남미의 개인기에 유럽의 힘과 조직력이 결합된 축구를 선보여 이러한 프랑스의 축구를 아트사커(Art Soccer)라 하고 축구의 하나의 전술적 기술로서 많은 나라들이 구사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느새부터 어떤 장르에 Art 라는 말을 붙여 즐겨 사용하고 그것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특정분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책에도 Art 라는 말을 붙인 아트북(Art Book)이 있는데 문학과 미술이 결합한 예술의 한 장르로 지식을 전달하는 책과 예술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아트(Book Art)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로는 책의 내용을 미술가들이 삽화나 그림으로 옮긴 것 또는 장식 그림과 관계된 말이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북아트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 단

순히 미술가의 책이 아니라 책의 형식을 취한 시각미술, 작품을 충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1973년 필라델피아의 무어미술 대학교에서 미술가들의 책(Artists' Books)이라는 전시회가 열렸고 같은 해 뉴욕근대미술관의 사서였던 클라이브 필포트(Clive philpott)가 <스튜디오 인터내셔널>의 칼럼에서 북아트 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북아트의 형식은 글자 없이 형상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자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일시적인 퍼포먼스나 설치미술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보통 책이라고 하면 네모난 모양의 종이를 묶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과 예술이 만나면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책이 탄생되는데 다양한 소재와 독특한 표현으로 개발한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책을 읽는 재미만이 아닌 보는 재미를 더해 주는 것이 아트북의 특징이며 매력적인 요소다.

책의 디자인, 장정

인류에게 문자가 생긴 후 그 글자를 적어놓을 대상물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죽간, 목독, 백서 등이 그것이다. 이런 초기의 책의 형태를 지금의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이 종이의 발명이다. 인류문명의 서막을 알리는

북아트 형식은 글자 없이
 형상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자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일시적인 퍼포먼스나 설치미술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보통 책이라고 하면 네모난 모양의 종이를 묶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과 예술이 만나면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책이 탄생되는데
 다양한 소재와 독특한 표현으로 기발한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책을 읽는 재미만이 아닌
 보는 재미를 더해 주는 것이 아트북의 특징이며
 매력적인 요소다.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이었다. 종이의 발명으로 종이
 가 대량으로 생산된 뒤부터는 종이를 붙이거나 종이를
 묶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시대를 거치면서 책은 지
 식을 탐구하는 도구로서의 기본적 기능 외에 사람들
 이 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외관, 재료 등 시각적
 요소가 중요시 되면서 책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도
 고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책의 외관 작업 즉 책을
 디자인 하는 것을 서지학에서 장정(裝幀 : Book
 designing and binding)이라고 하는데 표지의 디자
 인을 포함하여 책의 체제를 갖추고 장식하는 의장(意
 匠)을 말한다. 오늘날의 장정형식의 시초는 유럽의 중
 세수도원(中世修道院)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종이
 (당시는 양 또는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다)를 접고,
 이것을 모아서 접은 자국을 따라 칠한 다음, 두 장의
 얇은 판자로 끼우고, 접은 자국에 직각으로 가죽 끈이
 나 피대(皮帶)로 칠하며, 그 부분을 가죽으로 덮어서
 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죽으로 썼다. 표지의 가죽
 표면은 각인(刻印)이나 커트 세공으로 장식을 하고, 때
 로는 귀금속·보석·상아·칠보(七寶) 등으로 장식하
 였다.

이것이 근세에 와서 종이의 사용과 인쇄술의 발명으
 로 기술이 진보하여 종이가 두꺼운 종이로 되고, 금박
 을 입힌 장식이 일반화되었다. 19세기 이후에는 기계

에 의한 제본·장정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개인적·취미적이었던 장정도 변모하여 대량생산에
 의한 견고성과 내구성을 주안점으로 하게 되었다. 장
 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표지·등표지·뒷표지·면지
 (面紙)·속표지·띠·커버·케이스 등의 제자(題字)
 나 저자명을 비롯한 필기체·활자체·삽화·배색효
 과·제관·인쇄기술을 목적 내용에 적합하도록 선정
 하여 이것을 조화 또는 통일되도록 레이아웃에 신경
 을 쓰는 동시에 재료나 제본에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
 야 한다. 재료는 내구(耐久) 및 견고성을 중심으로, 표
 지는 피혁·클로스(Cloth)·양지(洋紙)·판지(板紙),
 커버에는 양지·합성수지, 케이스에는 골판지 등을
 사용한다. 때로는 금박이나 은박으로 표제를 나타내
 거나 수지 코팅을 해서 견고성과 시각효과를 높이는
 일이 있다. 전집물(全集物)이나 시리즈물에서는 제
 자·삽화·색채·레이아웃 등 총체적인 디자인 통일
 을 도모하고, 관심을 끌거나 시각효과를 촉진하는 기
 획을 하게 된다. 장식적 요소는 장정의 본질은 아니지
 만, 책도 일종의 공예품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나 동양
 에서나 예로부터 미적(美的) 장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되어 왔다. 아트북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책의 디
 자인은 장정이라는 기법에 예술적인 요소를 계속 가
 미하면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편집디자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83년 신식활자가 도입되어 근
 대적 책의 형태인 양장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의 책들이 한지를 사용한 한적이었는데 한적의 경우
 에는 근대적인 개념의 장정보다는 이용과 보존에 편
 리한 방법으로 변천해왔다. 그 변천 차례는 권자본, 절
 첩장, 호첩장, 포배장, 선장의 순이며 권자본은 우리나
 라 최초의 장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대적
 인 출판물에 대한 장정의 역사는 서양에 비해 매우 짧
 은 편이다. 19세기말 신식 인쇄술의 도입을 기점으로
 100년도 안된다. 필자는 한자는 배웠지만 한문을 잘
 몰라 책 수집에 있어 한적보다는 주로 양장본을 모았

다. 특히 책 수집의 시작이 잡지로부터 되었고 소장한 책 중에 비교적 시대적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잡지이기 때문에 잡지 장정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1890년 이후 1990년대까지 100년간의 장정의 흐름은 출판 상황과 잡지의 역사적 변화에 비추어 5 단계로 나누어 초창기, 혼란기, 정착기, 성장기, 안정기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초창기라 함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신문 및 잡지가 태동되던 때로부터 해방 전까지 근대적 개념의 질이 낮은 디자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이다. 이때는 근대적 의미의 편집 디자인 개념은 전무한 상태였다. 다만 조악한 인쇄술이지만 이를 통해 면수와 지면의 크기가 한정된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었던 시기로 출판매체로서의 틀을 서서히 잡아가던 때라고 볼 수 있다. 초창기의 잡지표지 디자인은 몇 가지의 유형이 있다. 문자만을 표지에 사용한 〈소년〉과 같은 유형, 일러스트를 사용한 〈청춘〉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시기에 편집 디자인이라는 것이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아 화가의 그림을 표지에 도입한다든지 붓글씨나 활자체를 제호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등의 일본과 거의 같은 고전적인 스타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혼란기는 해방이후 일본 및 미국의 출판물이 비공식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출판물과 대조를 보이며 직접 유통되던 때이다. 이당시의 어려웠던 점들은 인쇄시설과 기술의 미비 및 극심한 용지난 이었다. 6. 25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의 상처가 아문 이후에서야



드디어 잡지의 체제가 서서히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발행된 잡지로는 〈사상계〉, 〈현대공론〉, 〈여원〉, 〈학원〉, 〈현대문학〉 등이 있으며 건전하고 대중성 있는 교양지가 잇달아 창간되자 잡지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광복이후 많은 잡지와 단행본이 출판되었는데, 많은 화가들이 주요한 생계 수단인 하나로 책의 표지에 그림을 그렸다. 화가들은 당시 책표지 작업을 할 때마다 2~3개월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벌 수 있는 등 책 표지를 꾸미는 장정작업은 호구직책을 고민했던 화가들에게 큰 인기였다.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도 책표지 작업을 꾸준히 했던 작가 중 한명이었다. 특히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김환기는 문학잡지를 중심으로 문학책의 장정과 삽화 작업에 공을 들였다.

그는 책의 치수를 재어 책과 같은 크기로 구도를 잡고 채색을 했으며 단행본은 책의 앞·뒷면 표지가 펼쳐지면 하나의 그림이 되도록 작업했다. 1939년 문학지 문장부터 시작된 김환기의 책 작업은 세상을 떠나기 전인 1972년까지 계속 됐다. 특히 〈현대문학〉 같은 잡지의 경우 1955년 창간호부터 타계 직전까지 계속 책 표지 작업을 맡아 김환기 화풍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정착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 잡지가 컬러화·대형화되면서 잡지계가 정착되어 모양 갖추기에 신경을 쓰게 되던 때이다. 이시기에 창간된 〈주부생활〉은 한국 잡지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그동안 잡지의 체제가 국판이 대부분이었

던데 반해 주부생활은 4×6배판으로 원색 페이지도 대폭 늘려 기존의 잡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로의 변화를 선도 하였다. 이때부터 잡지계에도 시각적인 변화와 판형에 대한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성장기인 1970년대 중반부터는 편집 디자인이 전보다 더욱 체계화 되어 잡지의 전성시대를 맞았다. 이시기는 잡지가 보는 잡지로의 변환이 급격히 이루어진 때로서 디자인이 강화된 때이다. 곧 디자인의 개념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복제의 대량화, 인쇄시설의 기계화로 인해 외형과 내용이 체계화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사진이나 일러스트의 증가로 단순 편집에서 복합편집으로 변화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시기에 발행된 <뿌리깊은 나무>는 우리나라의 잡지 가운데 처음으로 아트디렉션 제도를 도입하여 편집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 개념을 강화 시켰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잡지는 활자조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조잡한 레이아웃과 문선공의 조판 운용방식에 맡겨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행사인 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잡지 문화는 안정을 찾았다.

디자인의 체계화와 고급화를 통해 편집디자인이 팔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여 오늘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컴퓨터 상용화와 인터넷의 발달은 종이책을 모으는 책 수집가들에게는 책 수집을 계속해야 하느냐 망설임을 안겨주었다. 전자책의 탄생으로 종이책은 없어질 것인가라는 화두는 출판관련 학자나 출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논쟁거리의 단골 메뉴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식혁명을 주도하는 콘텐츠의 탄생은 이런 논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종이책만의 아름다움

그러나 아무리 전자책이 접하기 쉽고 유용하더라도 종이책을 따라 올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책을 펼쳤을 때의 중량감, 인쇄잉크의 향기, 현종이의 향취 그리고 읽는 페이지가 많아질수록 느끼지는 성취감 그 속에

서 느낄 수 있는 상상력, 이러한 것들은 오직 종이로 된 책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책의 겉모습을 포함한 아름다운 책들은 전자책에서는 볼 수 없는 오직 장정을 통한 종이책에서만 볼 수 있는 종이책의 특권이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책으로의 혁명적 변화가 오고 양식이 바뀐다 해도 종이책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책 수집가들의 책 헌팅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는 미국 속담이 있다. 사물을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실제 책방에서 책을 고르다보면 표지 때문에 다른 책들에 비해 눈에 잘 들어오는 책들이 있다. 필자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와 같이 책 수집가들에게는 책 표지가 아름답거나 예쁜 책을 보면 그 책을 사서 읽고 안 읽고를 떠나 책을 사는 버릇이 있다. 이렇듯 책의 장정은 책이 상품으로서 가치는 물론, 판매와 직결됨에 따라 중요하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책표지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속옷이 아무리 예뻐도 어색한 옷을 입혔다가는 우스운 꼴이 되기 때문에 책의 얼굴인 표지의 장정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흔히 책을 경험의 전달자이자 지식의 보고라 한다. 책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책표지가 아름답다고 그 내용을 보지도 않은 채 책을 사서는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책 내용을 가다듬고 가꾸기 보다는 책의 겉모습에만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다. 이참에 내가 수집한 책 중에 내용도 좋고 모습이 아름다운 책들을 골라 전시회를 한번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 든다.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못과 연못

작은 물과 큰 물, 못과 호수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물들여다보기에 초대 받은 연승성원(蓮僧誠願)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못이란 넓고 오목하게 팬 땅에 물이 괴어 있는 곳으로 늪보다 작다고 하고 연못은 연꽃을 심은 곳을 못이라고 한다. 물을 들여다보면 못이라는 단어와 연못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속에는 수많은 수초와 수생 어패류가 살지요. 그리고 산에서 흐르는 물을 계곡 물이라 하고 높은 산 낮은 산 어느 곳에서든지 고이는 물을 약수 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손과 발을 담그기도 하고 씻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



울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속에 비치는 자기 얼굴과 모습이지요. 때로는 초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를 가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천연 거울이기도 합니다. 작은 물에서 좀 더 많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우리는 못이라고 표현하며 못 중에서도 큰 못, 작은 못으로 나누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 못에서는 수영도 하고, 어린 시절 허우적거리며 당황해했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큰 못에서 이제는 세월도 바뀌고 용어도 바뀌어 저수지나 호수라고도 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못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새로운 못의 세계 목수가 사는 세계의 못이 있습니다. 그 못은 수많은 사람들의 망치로 두들겨 맞고 평생을 꼼짝 못하고 살지요.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선원사지(禪源寺址)를 처음 와서 살던 1994년 어느 날 지붕에 올라 슬레이트를 썬우며 사용했던 구부러진 못을 펴서 망치로 내려치면 나를 비롯 그 못은 확 휘어지고 또 펴고 치면 또 확 휘어지고 하여 '에잇'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던 목수 아저씨가 '스님 못은 못 박아도 못 박고 잘 박아도 못 박는 것입니다.' 라고 훈수를 두어 한참을 웃으며, 휘어진 못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은 그 못 속에 연꽃이 있을 때 연못이라고 하지요.

연꽃이 있어 못은 연못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연꽃이 없어도 연못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물만 있는 곳을 못이라 부르고, 연꽃과 물이 함께 있는 곳을 연못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못에 연꽃이 등장함은 탁해지는 물을 연꽃이 섭취하여 맑게 정화작용 하는 것을 우리 선조께서는 이미 접목하셨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아름다움과 정화 능력에 반하여 연꽃에 대하여 많은 비유를 하시며 중생을 제도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저도 3만평의 연꽃 재배를 통하여 수많은 효능효과를 발견하고 연꽃을 찬탄하며 매년 축제와 함께 8월에는 연꽃

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역사 속에서 관상적인 연꽃으로 내려왔다면 이제는 전 국민과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연꽃으로 거듭나길 희망하며 연의 효능·효과를 전파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미 있는 연이야기를 적어 봅니다.

재미있는 연 이야기

이 밤이 지나면 진 연(蓮)은 피고 핀 연(蓮)은 집니다. 날마다 새로 피는 연(蓮)이라고 다 좋은 연은 아니겠지만, 새로 피는 연을 맞이함에 있어지는 연을 바라볼 눈과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연들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못 미치는 연(蓮)도 있었고 또 어떤 연은 나쁜 연(蓮)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끝내주는 연(蓮)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구해 피는 연(蓮)은 어떤 연(蓮)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蓮) 저 연(蓮)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에게 좋은 연(蓮)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못과 연못을 명확히 구분하고

잘난 체 꽃꽂이 선 거만한 연(蓮)

둘이 나란히 꽃대 올린 쌍 연(蓮)

도란도란 이야기 꽃 피우는 말 많은 연(蓮)

백련지에 이색 저색 섞인 잡 연(蓮)

더위에는 강하지만 추울 때는 얼어 죽을 연(蓮)

만병통치약 불로초 연(蓮)

먹으면 좋은 연(蓮)

안 먹으면 나쁜 연(蓮)들을 생각하고

매년 피어날 연못에 연(蓮)들을 생각하며

재미있게 웃으며 삽시다.

연승 성원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사, 세계 연(蓮) 연구소 소장

만의 숨결, 그림책 작가가 본 순천만

구름 그림자



만의 숨결,
그림책 작가가
본
순천만

34
35

2010 August Vol. 217



햇살 사이로 움직인다.

물도 바람도



구름 그림자



초록으로 가득하다.



햇살 사이로 움직인다.



겨울 땅



눈과 함께 빛난다.



순천만 김윤이 글 · 그림

순천만은 초망책방에서 기획하고, 순천 지역 출판사인 책과 도서관에서 2008년에 나온 책이다.

김윤이 작가는 준비하면서 1년 정도 4-5주에 한번씩 순천만을 방문했다. 원래도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1년간 혼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녔다. 순천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편안하게 다녔다고.

30분 정도 전망대로 올라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습인, 순천만의 s자 길을 한 장면으로 보이는데 이곳의 다양한 얼굴을 그려내고자 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던 아침의 풍경이 좋았다고 한다.

원시의 땅 우포늪, 신이 내려준 축복



늪, 신의 축복

늪은 수생식물의 천국이요, 살아있는 곤충박물관이며, 물고기들의 안식처이다. 철새들의 낙원이자 양서·파충류와 포유류들의 터전이다.

우포늪은 원시 생태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내륙습지로 1억4천 만 년 전에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 최대의 강 낙동강(洛東江) 배후습지인 우포늪은 아프리카 오카방고 삼각주처럼 사자와 코끼리, 버팔로 등 덩치 큰 동물은 볼 수 없지만, 샅과 수달, 긴꼬리투수새우, 큰고니, 가시연꽃 등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다. 생이가래, 자라풀, 마름 등 여름 우포늪을 뒤덮는 수많은 물풀, 늪의 신비를 더해주는 가을의 물안개와 풀벌레 소리, 고니와 노랑부리저어새, 기러기 등 수많은 겨울철새들의 싱그러운 몸짓, 야생화를 비롯한 희귀식물 천국인 봄의 향연은 신의 축복이다.

우포늪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쓰여진 조선지지(朝鮮地誌)에는 “하늘에 백두산 천지(天池)가 있다면, 땅에는 경남 창녕에 우포(牛浦)늪이 있다” 고 기록돼 있다. 그 옛날 우포늪이 얼마나 장대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 천지를 신성시해 왔듯이, 우포늪도 외경심으로 바라보았고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여겼다.

우포늪이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매립되기 전에는 그 크기가 지금의 5배(약 11km)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담수능력은 12억 5천만 톤으로 경북 안동댐에 육박했다고 한다. 현재 환경부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8.54km², 수면 면적은 2.3km²(약 70만평)이다. 서울 여의도만한 크기이다.

우포늪은 백악기 공룡들이 이 땅을 누비던 때 생성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빙하기 낙동강 일



대에 큰 지형변화가 일어났다. 빙하가 녹으면서 낙동강의 물이 범람하자 실려 온 모래와 흙이 지금의 토평천 입구를 막게 되고, 이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갠지면서 커다란 호수가 만들어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호수가 지금의 우포늪이 되었다.

우포늪은 어떤 기능을 하나?

우포늪은 다른 내륙습지와 마찬가지로 호수보다는 얇으며, 최대수심이 1m를 넘지 않는다. 늪은 오랜 세월 물이 고였다 흐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독특한 환경을 만들었다. 진흙이 두텁게 쌓이면서 여러 물풀들이 무성하게 자랐으며, 덕분에 물의 흐름이 느려져 비가 많이 오더라도 홍수가 크게 나지 않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을 풀어, 많은 생물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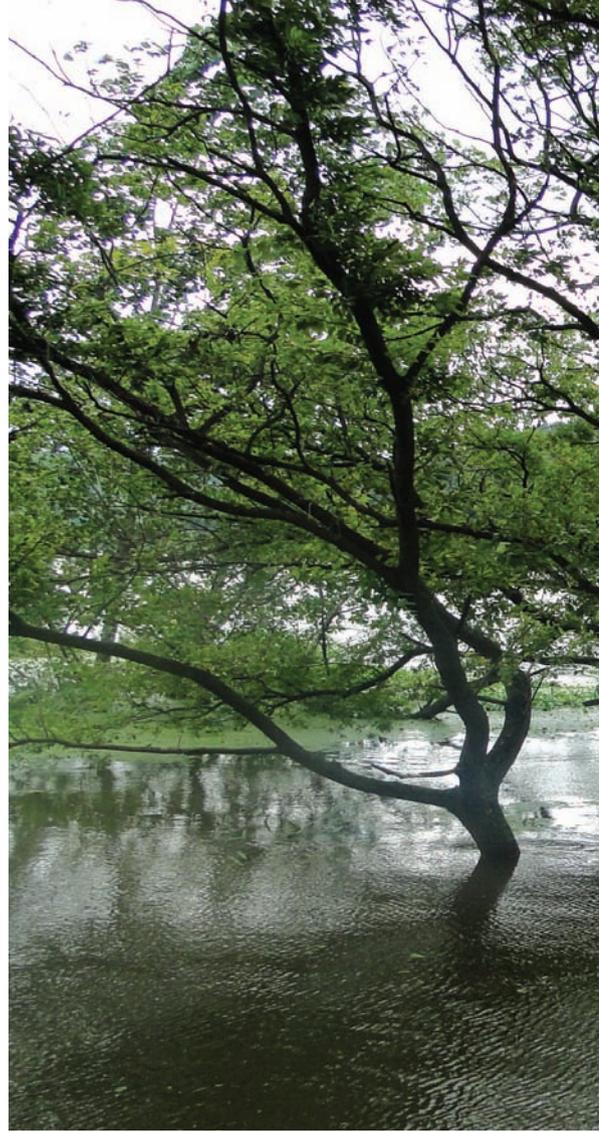
다양한 생명체들이 태어나고 사라져가는 거대한 생명의 고리이다. 우포늪은 미생물들이 끊임없이 동식물의 배설물을 분해해 고인 물이 썩지 않으면서 영양분이 풍부한 곳이 될 수 있었다. 우포늪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생태계의 모범이다.

람사르(Ramsar) 습지등록, 소중한 자연유산

우포늪은 1997년 7월 환경부로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 우리나라가 습지보전국제협약(람사르 협약)에 가입되면서 습지목록에 등록되었다.

환경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1999년 8월. 흔히 '람사르 협약' 이라고 부르는 이 협약은 1971년 2월 이란의 해안가 작은 마을,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돼 1975년 12월에 발효된 정부간 협약으로 정식명칭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 이다.

원래는 철따라 여러 나라를 이동하는 철새가 오염된 지역에 머문다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먼저 철새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



는 생각에서 시작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의 의도는 점차 확대 되었다. 지금은 철새의 서식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종(種) 다양성의 보존과 인류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습지를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지는 데 큰 의미를 두게 되었다. 세계 160개국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NGO(비정부기구) 관계자가 모여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습지보전 방안을 논의하는 람사르 당사국 총회는 습지보전을 위한 아름다운 약속이다.

우포늪에는 무엇이 사나?

정녕 우포늪은 무수한 생명들로 위대하다. 학자들



의 최근 조사결과 430여종의 식물, 42종의 물고기, 145종의 조류, 12종의 포유류, 11종의 파충류, 9종의 양서류, 그리고 수많은 곤충을 합쳐 대략 1천여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포늪이 가장 신비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는 여름철이다. 수면을 온통 초록의 용단으로 뒤덮는 가시연꽃(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종)과 노랑어리연꽃, 마름, 생이가래, 자리풀, 개구리밥 등 수생식물이 장관을 이룬다.

수면을 하얗게 뒤덮는 겨울철 고니와 노랑부리저어새, 가창오리, 원앙 등 수많은 철새들의 몸짓은 우포늪의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우포늪의 대표적

인 식물은 가시연꽃, 지름이 최고 2m에 달하는 가시연꽃은 우리나라 식물 중 가장 잎이 크고, 꽃이 자태가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지녀 많은 시인묵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우포늪에 작곡가와 화가와 시인과 사진작가들이 찾아들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 영감을 얻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다.

천의 얼굴, 우포늪의 사계

봄 우포늪은 생동감이 넘쳐난다. 수양버들과 내버들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 늪 주변에는 자운영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물 위에서는 앙증맞은

노랑어리연이 고개를 들어 봄이 왔음을 알린다. 소금쟁이와 장구애비, 물방개 등 수많은 곤충들도 봄을 맞이하는 춤을 춘다.

여름 우포늪은 훌쩍 자란 부들과 창포 올방개, 갈대 그리고 수면을 뒤덮는 가시연꽃이 강렬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그 잎 사이로 태연히 헤엄쳐 다니는 쇠물닭이 또 하나의 정경을 만들어 내고, 물 풀들이 수면을 뒤덮어 초록의 융단을 만들면 늪은 더욱 신비스러워진다.

가을 이른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늪을 보고 있노라면 태고적 품어 내던 이 땅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비라도 내리는 날에는 가슴 한 칸을 애는 듯한 비감(悲感)마저 들게 한다. 초록빛의 융단이 가을별에 익어가고, 풀벌레 소리에 가을이 깊어지면 밤에는 늦반딧불이들의 축제가 펼쳐진다.

겨울 우포늪은 철새들의 천국이다. 노을이 드리운 저녁 하늘을 나는 가장오리떼의 군무(群舞), 청둥오리, 큰기러기 등 철새들의 먹이 찾기와 휴식을 보는 이의 시심(詩心)을 자극한다.

가을빛으로 물들었던 풀들이 겨울바람에 견히고 나면 그 자리를 철새들이 차지한다. 우포늪은 4계절 살아있다.

우포늪에 사는 특이한 동식물

우포늪에 사는 동식물 중 가장 특이한 동물을 꼽으라면 드렁허리. 성장하면서 성전환을 하는 특이한 물고기이다. 뱀장어보다는 조금 작지만 미꾸라

지 보다는 훨씬 크다. 우포늪 체험학습을 위해 이곳을 찾는 학생들과 일반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늪과 저수지, 논 등지에서 관찰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우포늪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긴꼬리투구새우도 불만하다. 등 쪽에 30~40개의 마디로 된 투구모양의 껍데기가 있고, 등 앞쪽 중앙에 한 쌍의 커다란 눈이 있는 것이 특징.

포유류 중에서는 샴을 꼽을 수 있다. 먹이사슬의 꼭지 점에 있으며, 우포늪에서는 샴이 새를 사냥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아프리카의 오키방고 습지나 세렝게티 평원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멸종위기종 수달도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산업화이전에는 수달의 개체수가 수백 마리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수가 크게 줄어 쉽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수생식물로는 순채다. 옛말에 “산에는 산삼, 밭에는 인삼, 물에는 순채”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즐겨 나물을 해 먹기도 했다.

지금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잘 관찰되지 않는다. 우포늪은 한때지만 백조도래지로 지정된 적이 있다. 그만큼 고니류가 많이 날아온다. 한겨울 수면을 뒤덮은 겨울철새들의 평화로운 정경은 한편의 시(詩)가 된다.

우포늪의 가치

2001년 환경부가 우포늪의 자산 가치를 측정한 결과 한해 56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높은 생물학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뿐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켜 주는 약속의 땅이다.

우리에게는 자연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파괴할 권리는 없다. 자연은 인간들 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포늪은 가르쳐 준다. 높은 인간의 심성을 정화시켜주고 상



상력을 자극하며, 무한한 자애로움을 선사한다.

우포늪의 미래

감춰져 있던 보석, 우포늪이 1990년대 말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 성큼 성큼 걸어 나왔다.

‘2008 랍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경남 창원)이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생태관광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포늪은 이제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우포늪을 DMZ(비무장지대)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향후 정부가 우포늪 일대에 3년여 동안 쏟아 부을 사업비는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포늪이 세계적인 생태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생태전문가들은 가급적 도로를 새로 내고, 건물을 짓는 등 하드웨어적인 것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기 보다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늪 주변의 건물을 보상, 이전시켜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월든 호숫가에서 사색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오두막집을 구경하기 위해 연간 전 세계 60여만 명의 문학순례자들이 찾아온다는 사실만 봐도 문화콘텐츠의 힘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월든호수를 어떻게 생태관광지로 활용하고 있고, 홍콩은 어떻게 마이포 습지를 아름답게 가꿔 수많은 탐방객을 불러 모으며, 일본이 자랑하는 쿠시로 습지와 호주의 분달늪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자연은 우리를 끊임없이 내면의 세계로 인도한다.

누군가 ‘하늘과 만나는 것은 오직 한 길, 고요밖에 없다’고 했다. 우포늪은 절대 고요의 경지에 들게

하는 곳이다. 어떤 시인은 “호수가 달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호수가 넓어서가 아니라 호수가 맑아서이다”라고 했다. 우포늪은 이 땅에서 가장 맑고, 야성(野性)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들 마음의 고향

우포늪에는 사철 소리로 넘쳐난다. 이른 봄 짝짓기를 위해 구애(求愛)의 목청을 높이는 개구리들. 여름이면 파랑새와 찌꼬리, 종달새가 서로의 기량을 뽐내고, 가을이면 수많은 곤충들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

겨울이면 기러기와 고니, 청둥오리, 원앙 등이 화려함 자체와 노래솜씨를 자랑한다. 우포늪은 아름다운 소리들로 풍요롭다.

새들은 우포늪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새들이 없는 우포늪은 상상할 수 없다. 물새들이 한가로이 노는 모습을 연중 어느 때나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철새였던 왜가리와 백로는 이곳을 아예 터전으로 삼고 눌러앉았다.

풍부한 먹이 덕에 생존과 번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새들의 비상(飛翔)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명상효과가 있을 것이다.

애써 단전에 의식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 우포늪에서는 무아(無我)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강병국 경상대학교 겸임교수
(사)푸른우포사람들 부회장

共通禮節

공통예절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예절(禮節)의 방위(方位)와 상하석(上下席)의 기준(基準) 및 좌석배치(座席配置)2

좌석배치(座席配置)의 실제(實際)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생기고 한동안 헌법재판소장이 국가 의식행사에 예고 없이 참석하지 않아서 행사 담당부처인 총무처 관계자가 좌석정리에 난처했다. 당시 총무처 의전 관계자가 필자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었다. 알고 보니 국가서열 4위인 헌법재판소장의 좌석이 5위의 자리에 준비했던 것이다. 즉 위계서차(位階序次)는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인데 4위인 헌법재판소장의 좌석을 5위인 국무총리 보다 아래에 배치한 것이 문제였다. 이것이 바로잡아진 다음에야 헌법재판소장이 국가의 의식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국가서열을 합리적으로 살피면 대통령이 1위, 국회의장이 2위, 헌법재판소장이 3위, 대법원장이 4위, 국무총리가 5위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으로 재판을 하고, 일반 법원은 하위법인 일반 법으로 재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일은 의식행사도 자주성(自主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주관하는 의식행사는 좌석배치와 식순 등이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되어야 문화민족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하는 날(2월 25일)의 0시(子正)에 시작되는데, 취임선서(就任宣誓)는 오전10시에 한다면 0시부터 10시 까지 10시간은 국가원수(國家元首)의 결위사태(闕位事態)가 벗어진다. 이 문제를 1993년에 제기하여 문제가 없도록 법제화 한다고 하더니 증무소식(終無消息)이다.

동양의 고대 예서인 예기(禮記)에 보면 “예란 마땅하게 하는 것이고, 외국에 사신으로 가서는 그 나라의 풍속을 따른다.(禮란 從宜요 使란 從俗이라)” 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5. 좌석배치(座席配置)의 실제

예절의 방위를 알고 바른 위치와 상하석의 기준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의 예의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좌석의 배치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참석하는 손님을 불쾌하게 한다. 위계와 석차가 일치하면 바른 손님대접이 되어 주인과 손님이 모두 즐겁고 떳떳하지만, 위계와 석차가 뒤죽박죽이 되면 손님이 엉성하고 무례한 대접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고 주인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통의식에서 어떻게 좌석배치를 했었는지를 먼저 알아보며 그것을 현대의식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피고, 다음에는 현행 각종행사에서의 좌석배치와 석차를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인지와 일상생활상의 석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가. 전통 의식행사에서의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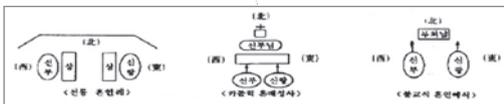
1) 혼인예식에서의 신랑·신부의 위치

동양의 전통혼인례 뿐 아니라 가톨릭의 혼배성사나 불교식 혼인예식 등도 신랑이 동쪽이고 신부가 서쪽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동서양과 종교 의식이 모두 남자를 동쪽, 여자를 서쪽에 위치하게 하는 까닭은 어디에서나 해가 동쪽에서 뜨고 해 뜨는 곳이 양이며 양이 남자이기 때문에 신랑은 동쪽에 위치하고, 해가 서쪽으로 지고 해지는 곳이 음이며 음이 여자이기 때문에 신부가 소쪽에 위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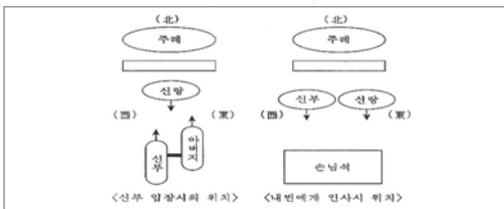
또 동서의 기준은 동양의 전통혼인례에서는 신랑·신부가 선 위치, 즉 병풍을 친 곳이 북쪽이 되고, 가톨릭에서는 성좌(聖座)가 상좌이며, 불교에서는 불좌(佛座)가 상좌이므로 그곳을 북쪽으로 간주해 설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양의 전통혼인례와 기타 지역의 관습 및 종교의식이 모두 상좌를 북쪽으로 설정해서 신랑이 동쪽이고, 신부가 서쪽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신식 혼인예식은 신랑이 서쪽, 신부가 동쪽으로 정반대로 되었다.

남자가 서쪽, 여자가 동쪽에 위치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경우임은 뒤에 설명하는 신위와 시체의 위치에서 밝혀지듯이 현재의 신식 혼인예식장에서의 신랑과 신부는 죽은 신위, 또는 묘지에 매장된 시체의 남녀 위치인 것이다. 당연히 바르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4-3 전통종교 혼인예식에서의 좌석배치



24-4 신식 혼례시 신랑신부의 위치

2) 부모가 자손의 절을 받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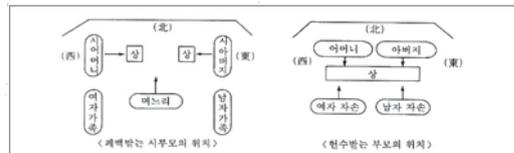
① 며느리의 현구고례(폐백)를 받는 시부모는 “시아버

지와 시어머니가 상좌에 앉는데 시아버지(舅)가 동쪽이고, 시어머니(姑)가 서쪽이다(舅東姑西).” 라고 현구고례(見舅姑禮)조에 명시 되어있다.

역시 상좌가 북쪽으로 간주되어 상좌의 좌측이 동쪽이고 상좌의 우측이 서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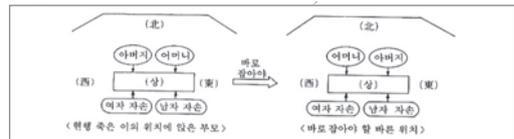
② 생신이나 명절에 어른(부모)이 자손에게서 헌수(獻壽)를 받는 데도 아버지가 동쪽이고 어머니가 서쪽에 앉는다. “좌측에 남자, 우측에 여자가 위치하는데 좌우란 어른(상좌)의 좌우를 말한다.” 고 규정해 역시 상좌의 좌측인 동쪽에 아버지가 앉고 상좌의 우측인 서쪽에 어머니가 앉는다. 당연히 상좌가 북쪽으로 간주된 좌석 배치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좌를 북쪽으로 간주해 상좌의 좌측인 동쪽에 남자가, 상좌의 우측인 서쪽에 여자가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사이의 폐백 드리는 곳이나 회갑 등 수연례에서 보면 남자가 상좌의 우측인 서쪽, 여자가 상좌의 좌측인 동쪽에 앉아 신위나 시체와 같은 위치에 있다. 어찌 살아계신 부모를 죽은 신위나 묘지의 시체와 같은 위치에 앉으시게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예절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4-5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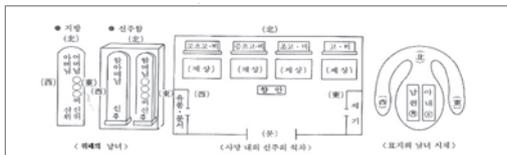
24-7

3) 죽은 신위와 묘지 시체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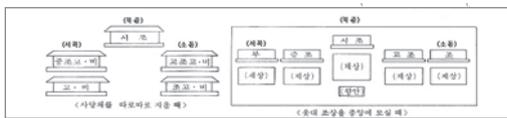
산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위치는 남자가 동쪽이고 여자가 서쪽이며, 동쪽이 상석이고 서쪽이 하석이지만, 죽은 사람의 위패나 묘지에 시체를 매장할 때는 산 사람과 반대로 서쪽에 남자나 어른이 위치하고 동쪽에 여자나 아랫사람이 차례로 위치한다.

산 사람은 양계(陽界, 밝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 해가 떠서 밝음이 오는 양의 방위인 동쪽을 상석으로 하지만 (生者 以東爲上), 죽은 사람은 음부(陰府, 어두운 곳)에 있으니 해가 저서 어둠이 깃드는 음의 방위인 서쪽을 상석으로 하는 이서위상(死者 以西爲上)의 석차로 한다. 하나의 지방에 남자 조상과 여자 조상을 나란히 쓸 때 하나의 신주함(??독)에 내외분의 신주를 함께 모실 때는 서쪽에 남자의 위패, 동쪽에 여자의 위패를 쓰고 모신다. 집안의 형편이 넉넉지 못해 조상의 위패(位牌)를 한 칸의 사당(祠堂)에 모실 때는 옷대 조상을 서쪽에 모시고 아랫대 조상을 차례로 동쪽에 모신다. 그리고 묘지에 부부의 시체를 합장할 때는 남편인 남자를 서쪽에 묻고 아내인 여자를 동쪽에 묻는다. 조상 산소에 세운 묘비(墓碑)에 보면 여자 조상의 표기 밑에 부좌(附左)라고 써서 '왼쪽에 붙였다.' 는 뜻을 담았는데, 왼쪽이란 바로 남자의 왼쪽이란 의미이며 그들 자신이 상좌이므로 그 왼쪽인 동쪽이다.(그림248)

이상 설명한 내용은 같은 열에 한 줄로 모시는 경우인데, 형편이 넉넉해서 사당집을 조상에 따라 따로 짓거나 아니면 제일 옷대를 중앙에 모시고 아랫대를 그 좌우 양쪽으로 모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그림249)과 같이 모신다.



24-8



24-9

위 [그림 249]의 석차는 중앙과 양단(양쪽)은 중앙이 상석이라는 지난 호의 '상하석의 기준 2항'의 취지에 맞춘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일 옷대 조상인 시조를 중앙이나 북쪽에 모신 것은 이해되는데, 죽은 자는 서쪽이 상석이라면 왜 중조보다

옷대인 고조를 동쪽에 모시고 아랫대인 중조를 서쪽에 모시느냐는 문제와, 아버지(父)를 제일 상석인 서쪽에 모시고 중조를 그다음에 모시느냐는 문제가 부각된다. 여기에서는 중앙이 상이고, 상석에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 상이라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앙이 상석이라는 말은 그 좌우에 다른 순위자가 있을 때에 중앙이 상석이지 그 좌우의 한 쪽이 비어 있으면 상석을 중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고조를 그림의 중조의 위치에 모시고 시조와 고조를 보면 고조가 서쪽이고 시조가 동쪽이 되어 고조가 시조보다 상석이 된다. 그래서 고조를 시조의 동쪽에 모셔야 시조와 고조를 보았을 때도 시조가 상석이 되기 때문이다. 중조를 시조보다 서쪽에 모시더라도 그때는 시조의 좌우가 모두 채워졌으므로 시조가 중앙이 되어 상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좌석배치를 소목지서(昭穆之序)라 한다.

4) 자손들이 의식에 참석할 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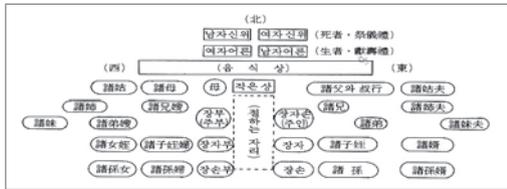
살아계신 어른을 상좌에 모시고 자손들이 절을 하는 수연(壽筵)과 같은 의식에선 조상의 제례를 지내는 경우이든 그 대상이 상좌에 계시며, 그 상좌가 북쪽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자손들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차례대로 서는 것이 된다.

당연히 남자 자손은 상좌의 좌측인 동쪽에 위치하고 여자 자손은 상좌의 우측인 서쪽에 위치하며, 상좌에서 가까운 앞쪽이 상이고 상좌에서 먼 뒤쪽이 하석이고, 남자가 좌우로 갈라섰을 뿐 아니라 중앙에 의식을 행하는 절하는 자리가 마련되므로 중앙이 상이고 양단이 하석이 된다. 그러므로 남녀의 자손들은 상좌에 가까운 앞(북)쪽에 세대가 위인 자손이 서고 뒤(남)쪽에 세대가 아래인 자손이 서야 한다.(丈夫處東 以西(中央)爲上 婦人處西 以東(中央)爲上)

또 남자는 동쪽에 섰으므로 같은 세대에서는 중앙인 서쪽에 연장자가 서고 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연하자가 차례대로 서야 한다. 만일 사위가 참석할 때는 이들과의 다음에 차례대로 서야 할 것이다.

여자의 경우는 서쪽에 앉으므로 같은 세대에서는 중앙인 동쪽에 연장자인 며느리 그리고 딸들이 서고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연하자인 며느리와 딸들이 선다. 다음 그림에서의 관계는 주인(主人)인 장자(長子)와의 관계로 표시한 것이다.

장자손인 주인이나 주부의 정면 앞에는 모(母)의 경우와 같이 직계존속만이 위치할 수 있고, 비록 윗대의 어른인 숙부나 고모부 또는 숙모나 고모라도 주인이나 주부의 정면 앞의 상석에는 서지 못하는 엄격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주인과 주부의 바로 뒷자리에는 대를 이을 장자손이나 그 배우자만이 위치한다는 원칙을 알 수도 있다.



24-10

나. 현행 의식행사에서의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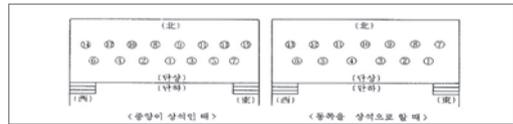
위에 설명한 전통의식의 석차는 이유 없이 아무렇게나 정한 것이 아니고 생(生)과 사(死), 양(陽)과 음(陰), 윗세대와 아랫세대, 연령의 많고 적음, 가통(家統)의 직계와 방계(傍系)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해 차례를 결정하고, 위치의 상하도 지난 호에 밝힌 '상하석의 기준' 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의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관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립되어 꾸준히 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생활을 하는 우리도 현대생활 여건에 크게 차질이 없는 우리의 전통을 살려 한국의 의식행사에서는 우리의 방법으로 의식행사에서의 석차를 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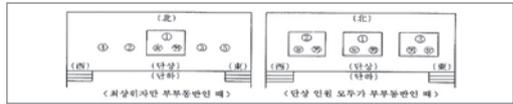
한국인이 주관하는 의식행사는 한국의 방법으로 해서 설사 외국인이 참석하더라도 한국의 방법에 따르고, 우리가 외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는 그 나라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바른 예절이며, 전통과 주체성에 입각한 자존(自尊)하는 바른 자세라 할 것이다.

1) 단상(壇上)의 좌석배치

단상이란 그 의식행사의 상좌를 의미하므로 그 장소에서는 단상이 북쪽이 되고 단상에서 단하인 남쪽을 향해 좌측이 동쪽이며 우측이 서쪽이 된다. 단상의 좌석배치는 상좌인 단상에 위치해야 할 인원의 구성이 모두 동성(同性)인 경우와 최상위자가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와 모든 단상의 사람이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4-11



24-12

(1) 단상의 모든 사람이 동성이거나 설사 남녀가 합석이라도 배우자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순수한 위계에 의한 순서로 석차를 정한다.(그림 24-11)

그리고 중앙을 상석으로 하는 경우와 동쪽을 상석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해서도 생각한다. 중앙이 상석인 경우 ①번이 1순위자이고 ②번이 2순위, ③번이 3순위이므로 ①번이 상좌가 된다. ②번이 ①번의 서쪽이 된 것은 ①번과 ②번만 볼 때 ①번이 동쪽이고 ②번이 서쪽이라 동쪽이 상석이라는 원칙에 맞는다. 즉 이 ①번이 중앙이 될려면 ①②③번이 모두 있을 경우이지 ①②번만 있으면 중앙이 상석이 아니라 동쪽이 상석이 된다. 그래서 2순위자는 1순위자의 상석인 동쪽에 앉을 수 없고 하석인 서쪽에 위치해야 한다.(중앙이 상석인 때)

동쪽을 상석으로 하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①②③번의 순서로 동쪽이 상위자이고 서쪽이 하위자이다.(동쪽을 상석으로 할 때)

(2) 단상의 최상위자만 배우자와 동반일 때는 부부는 상하가 없이 동위격(同位格)이므로 부부를 모두 최상순위로 보아 최상석에 위치한다.(그림 24-12)

다만 최상석 중에서 최상위자가 동쪽, 그 배우자가 서쪽

이어야 한다. 만일 최상석에 남자인 최상위자가 서쪽, 여자인 배우자가 동쪽에 배치되면 그들은 죽은 사람의 위치에 앉게 되어 무례한 결과가 된다.(최상위자만 부부 동반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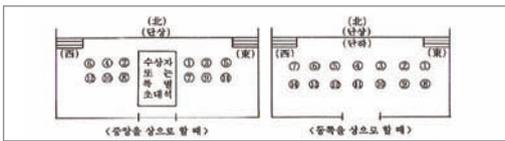
(3) 단상에 위치할 전원이 부부동반인 때는 각기 부부를 동위격으로 해서 부부를 한 순위의 석차에 자리 잡게 한다.(단상의 모두가 부부 동반인 때))

다만 주의할 점은 각기 부부의 위치는 최상석은 남자인 남편이 동쪽, 여자인 아내가 서쪽에 되지만 2순위석과 3순위석은 1순위석 쪽에 남자 바깥쪽에 여자가 앉아야 한다. 이유는 상석에 가까운 곳이 상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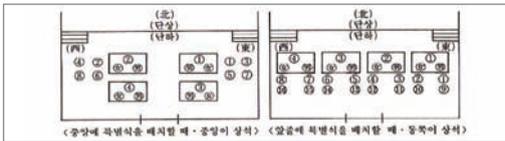
2) 단하(壇下)의 좌석배치

의식행사는 단상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하의 일반 참석자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하의 참석자도 구경꾼이 아니라 의식행사의 주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하의 좌석배치도 예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단하의 좌석배치도 남자는 여자는 같은 동성만 참석하는 경우와 남녀가 합석하는 경우 및 부부동반의 경우가 있으며, 중앙을 상으로 할 때와 동쪽을 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중앙을 상으로 하는 경우는 특별한 좌석이나 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24-13



24-14

(1) 동성(同性)만이 참석하는 경우도 중앙을 상으로 할 때와 동쪽을 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중앙을 상으로 하는 경우는 특별한 좌석이나 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그림 24-13)

(2) 수상자 또는 특별 초대자가 부부동반인 때는 부부는 동위격으로 각기 부부를 같은 순위의 좌석에 배치하되 중앙쪽이나 동쪽에 남자인 남편이 위치한다.(그림 24-14)

(3) 단하의 참석자가 남녀 합석인 때는 동쪽에 남자가 위치하고 서쪽에 여자가 위치한다. 남녀가 같은 수인 때는 중앙을 분리선으로 하고, 한 쪽이 많고 적을 때는 적절히 배치해 남동여서로 분리한다.

다. 일상생활에서의 좌석배치

위계에 맞는 좌석의 배치와 석차는 의식행사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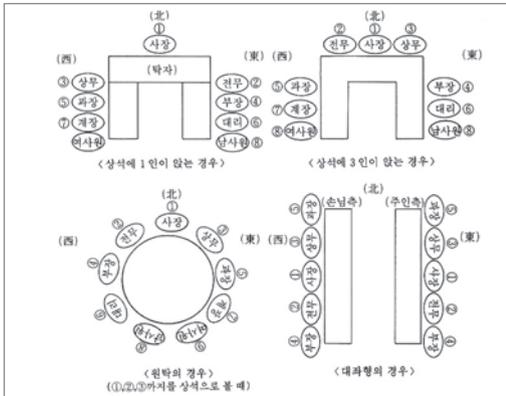
조직이나 직장에서의 회의장 배치, 가정에서의 가족의 석차, 손님을 맞이할 때의 석차 등에 이르기까지 석차의 응용은 한없이 적용된다. 몇 가지의 응용례를 여기에 제시해 참고가 되도록 하므로 다음과 같다.

1) 회의장소의 좌석배치

(1) ㄷ자형: 먼저 회의장소의 좌석배치를 생각해 본다. 회의도 상석과 하석을 구분하고 상석에 최상위자 1인만 앉는 경우와 복수로 앉는 경우가 있으며, 대좌(對座)형과 원탁형도 있다. 단상에 3인이 앉을 때는 최상순위와 2순위만 볼 때에도 최상순위가 상석인 동쪽이 되도록 배치한다.(그림 ㄷ자형: 상석에 3인이 앉는 경우, 원탁형: ①②③까지를 상석으로 볼 때)

(2) 대좌형: 주인과 손님측이 대좌할 때는 주인측이 동쪽이고 손님측이 서쪽이다. 대좌형의 경우 북쪽에서부터 ①사장 ②전무 ③상무 ④부장 ⑤계장의 순위로 배치하기도 하고, 최상위자인 사장이 중앙에 앉을 때는 ①순위인 사장과 ②순위인 전무만 볼 때 사장이 북쪽이 되어야 하고, ③순위인 상무까지 볼 때는 사장이 중앙이 되어야 한다.(그림 대좌형의 경우)

(3) 원탁형: 원탁인 경우는 ①순위인 사장과 ②순위인 전무만 볼 때 사장이 동쪽이 되어야 하고, ③순위인 상무까지 보면 사장이 중앙이 되게 배치한다. 원탁의 성격에 맞게 위계를 따지지 않을 때는 서로가 편하게 위치하면 된다.(그림 원탁의 경우)



24-16

2) 응접의자의 좌석배치

응접의자에 앉을 때도 상하급의 경우와 남녀의 경우 및 주인과 손님의 경우 등으로 생각한다. 응접세트가 상좌에 홀로 앉는 의자가 없이 대좌하는 경우는 대좌형 회의장 좌석배치의 경우와 같이 하면 된다.



24-17

3) 승용차 · 버스 등의 좌석배치

승용차의 경우는 자가운전 때는 운전석의 옆이 상석이고, 운전기사가 따로 있을 때는 운전석의 옆이 최 하석이다. 뒷좌석의 가운데에 여자가 앉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뒷사람의 좌석과 바꾼다.

버스 등의 좌석은 차가 가는 방향을 향하는 창쪽을 상석으로 한다. 자동차의 좌석 석치는 승하차의 편리와 창밖의 경치 구경의 편리를 위주로 해서 정한다.

4) 가정생활에서의 좌석배치

가정생활에서의 석차의 경우도 응접의자를 이용할 때는 직장생활의 경우와 같고, 평상시의 가족 합석과 식탁에 앉을 때를 예시하면 그림 24-16, 24-17과 같다.

모든 좌석의 배치는 이상 열거한 각종 석차를 참고해 목적에 맞도록 조정하면 될 것이다. 이상의 예시는 우리나라의 전통관습에 의한 상하석(지난 호 상하석의 기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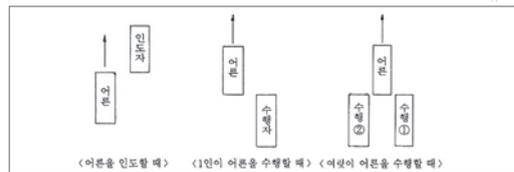
개념에 맞도록 배치한 것이다. 만일 외국인이 주관하는 좌석에 참석할 때는 그 나라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주관하는 좌석배치는 우리나라의 방법에 의해야 마땅한 것이다.

5) 어른을 인도, 수행할 때의 위치

어른을 인도할 때와 어른을 수행할 때의 웃어른과 아랫사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어른을 인도할 때는 어른의 우측 2~3보 앞에서 인도한다. 그래야 앞에서 볼 때 인도자가 어른의 하석에 있게 된다. 어른을 1인이 수행할 때는 수행자가 어른의 2~3보 뒤의 우측에 선다. 그래야 앞에서 볼 때 수행자가 하석에 있게 된다.

여러 사람이 어른을 수행할 때는 어른을 중앙에 모신다. 그래야 어른이 중앙이 되어 상석이 된다. 특히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어른을 모실 때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어른의 앞에서 어른을 인도한다.



24-18



문화원 특파원

하남 단오축제

제1회 하남단오축제가

금년 단오날(음력 5월5일)에 개최되었다.

하남은 유구한 역사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우리역사 흥망성쇠의 중요한 요충(要衝)이며

한강의 하류, 서울의 동쪽 관문으로써

지리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급격한 물질문명의 범람으로

전통적인 문화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때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을 살려내고

지역민들의 애항심을 고취하기위해

단오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하남지역의 역사와 지역행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하남의 역사와 문화

하남은 지리적으로 한강하류이며 서울의 동쪽 끝에 자리하면서 산천 수려하고, 물 맑고 공기 청정한 지역으로 역사적으로는 백제가 한강 하류 지역인 이곳에 하남위례성을 쌓고 고대국가를 건설하였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접경으로 서울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아차산성, 하남의 이성산성은 삼국시대에 한강을 차지할 때 한반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역사적인 요충지다.

또한 하남지역엔 선사시대, 청동기시대, 삼국시대의 역사유물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괄호, 시루 등 토기유물과 철제말, 목제자 및 돌 거울, 활석등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현재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고 미사리 선사유적지, 춘궁리 석탑, 철조 석가여래 좌상, 교산동의 마애불, 사리고개석불등 유형문화재와 삼국시대의 도미부인의 전설, 검단산 전설 등이 전해오고 있다. 무형문화제로는 검단산 산신제, 미사리성황제등이 있으며 춘궁

동 지경다지기, 줄다리기는 경기도 대표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하였고 조선말기 천주교 신자 순교지로서 구산성지와 서유견문록의 유길준, 독립운동가 이대헌등 역사유적과 인물 등 문화의 자취가 많은 지역이다.

단오축제 행사

전국에는 지역마다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가 있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데 하남지역에도 많은 문화유적이 있지만 유적복원이 되지 않고 격년으로 개최하는 이성문화제가 있으나 하남문화원이 지역의 전통 민속 문화 발전을 위해 전주민이 참여하는 명절인 단오절을 부활하고

자 계획하여 금년 6월 16일에 『제1회 하남 단오축제』를 개최하였다. 원래 단오절은 우리나라에서 설날, 보름, 추석과 더불어 4대 명절로써 임금을 비롯한 전백성이 농사의 파종을 하고 모를 낸 후 휴식이 필요한때 행하던 축제의 날이며 창포에 머리를 감고, 수리취떡(쑥떡)을 먹고, 굿판이 벌어지고, 그네뛰기, 씨름 등을 하면서 즐겼던 민족의 명절이다.

하남문화원에서는 이번에 단오축제를 개최하면서 먼저 어린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금년 『제1회 하남 단오축제』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행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성인들과 함께하는 전 시민의 행사로 발전시켜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애郷심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행사는 문화원장이 주관하여 각급기관, 단체장들과 지역 내 13개 초등학교에서 600여명의 선수와 교사가 참여하고 본 문화원, 지역 내 적십자사 연합 봉사회, 각종 봉사 단체 회원 등 천여명이 참여하여 창우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였다.

민속놀이로는 그네뛰기, 씨름하기, 투호하기, 제기차기를 행사 체험으로는 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오 부채 만들기, 종이 탈 그리기, 소원성취문 쓰기와 태우기, 떡메치기, 수리취떡 떡살 찍기, 다식 만들기를 하면서 뜻 깊고도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서로 먼저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려 수 십 명이 줄을 서고 우습게도 짧은 머리 남학생도 서로 먼저 감으려고 하고 어머니의 손길로 정성스레 감겨주는 봉사요원들의 정겨운 모습, 으라차차 씨름판, 하늘을 차고 나는 그네, 철떡 철떡 떡메소리, 맑고 시원한 바람을 내는 부채 만들기 등 시끌벅적 흥겨운 한마당 마지막엔 사물놀이와 민요가락에 맞춰 어린이 어른 손잡고 덩실 덩실 강강수월래가 돌고 소원성취문을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듯이 불타오르면서...

함께해요. 우리의 전통 문화 놀이
함께 즐기시다. 함께 흥겹게 손잡고 춤추자고요.
팔당댐에서 흘러내리는 푸른 한강 구비 구비 감싼 곳
검단산의 짙푸른 녹음 우리의 심신을 가꾸는 휴식처
아득한 선사시대로부터 한반도 역사의 분수령을 이룬
하남위례성, 하남 이성산성, 선조들의 얼이 서린 곳
우리 오늘 이곳에 흥겨운 잔치 벌였네.

향토 문화 창달의 문을 열었네.
우리의 소중한 새 싹들과 함께
이 흥겨움이, 이 미풍양속이,
이 소중한 문화향기가
이 고장의 자랑이 되고
온 누리에 퍼져나가리.

축제의 참뜻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지역마다 서로 함께 즐기면서 단합하는 미풍양속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행하여 왔으나 지금은 전통적인 축제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축제를 통하여 서로 간에 응어리를 풀고 함께 즐기면서 결속을 다지는 것이 한 고장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을 합쳐 이겨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장려해야 할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행사를 발전시켜 전국적인 행사는 물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관광 축제 등으로 육성하는 것도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낫하다고 보겠다.

모쪼록 이번 하남 단오축제가 이 지역의 미풍양속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다짐하고 기원해본다.



조성일 하남문화원 '우리문화' 기자

거창문화원

2010년도 여성 주간 기념

「제5회 거창여성문화제」 개최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2010년도 여성 주장을 맞아 '제5회 거창여성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올해 제5회 거창여성문화제에서는 거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의 모아 전시한 '향토 여류 작가 작품전' 과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예절 체험 및 문화탐방' 행사를 추진하였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2층 전시실에서 서양화, 한국화, 수묵화, 서예, 민화, 맥간공예 작품 등 총 34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거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작가들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또한 지난 7월 6일에는 관내 직장 여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 하동군의 차문화체험관을 방문하여 김명애 예절강사님으로부터 다례, 절하는 법 등 기본예절들을 배웠으며, 정주환 문화원장으로부터 제례의식 강의, 표선자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거창의 역사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예절체험과 더불어 썩게사와 산청한방박물관, 국새박물관 등을 답사하며 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통예절과 생활 상식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로 인해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던 여성들에게 오랜만의 휴식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 거창문화원은 여성의 역할이 크게 돋보이고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의 지혜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마산문화원

2010 일본 미노미공민관 한일문화교류행사

마산문화원(원장 임영주)은 일본 후쿠야마시 미노미공민관일행을 맞이하여 6월 28일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29일까지 한일문화교류행사를 가졌다. 본 교류회는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되어 20년째 매년 교환 방문하고 있으며 "한일문화이해교실"을 통하여 한일 양국간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금번 교류회는 28일 오후 마산시청, 시의회를 방문하고 아리랑호텔에서 저녁 7시부터 마산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의 전통춤, 댄스스포츠, 민요 발표공연을 관람하면서 환영행사를 가졌다.

다음날에는 경주의 문화유적(불국사,석굴암,대릉원,박물관)을 둘러 보면서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일양국간의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였다. 이와 팔 사이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 된다.

문경문화원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문경시의 야간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한 '문경새재달빛사랑여행' 제3회차가 6월 26일 토요일 정미기간에도 문경새재에서 알차게 열렸다. 전국의 여행 매니아 150여명이 참가한 이날, 정미가 비קר 갈만큼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문경새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를 만끽했다.

경북대학교병원 탁구동회가 1조로, 총 5개조가 출발한 이 여행은 아름다운 사랑을 담아내기에 충분했다.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이 기획진행하고, 문경시와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이 여행은 날이 갈수록 전국의 남녀노소가 두루 참여하고 있으며, 6년째를 맞아 스토리텔링상품으로 완전히 정착, 문경시와 문경새재의 새로운 관광상품 모델로 자리하였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심천 이상배 국전심사위원의 그림 퍼포먼스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왔을 때도, 그림으로써 달을 보게 하여 여행객들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또한, 푸짐한 경품과 상품을 준비하고, 깔끔한 공연을 펼쳐 여행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여행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문경시 순회공연 시작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문소공'의 문경시 순회공연 첫 번째 행사가 현한근 원장을 비롯하여 김지현 문경시의원, 김중기 서문경농협 조합장, 남두원 가은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가은읍 석탄박물관 건너편 주차장에서 즐겁게 펼쳐졌다.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저녁, 어스름 해가 깃드는 야외무대에서 리허설 음악소리에 한두 명씩 모여든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은 이내 공연에 흠뻑 빠져들었다.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참석한 공연은 50명의 단원들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문소공, 단원 50명의 문경새재아리랑』 연주로 막을 연 이날 무대는 민요팀 20명의 청춘가, 태평가, 사발가가 분위기를 잡아나갔고, 곧이어 참석 내빈들의 막간 무대는 전체 분위기를 즐겁게 하였다.

이어서 펼쳐진 10명의 악기 팀은 번지 없는 주악, 유정천리, 장미꽃 한 송이 등을 섹소폰으로 합주하여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 사이 관객들을 무대로 모시고, 관객과 공연자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꾸몄고, 마지막으로 20명의 가요 팀이 나와 문경재, 넝쿨째 굴러 온 당신 등을 합창하여 관객들이 같이 하는 무대를 펼쳤다. 깊어가는 한여름 밤 10시, 바람에 일렁이던 녹음방초도 잠들고, 하늘의 별들도 잠들고, 공연에 귀 기울이던 풀벌레들도 잠들면서 『문소공, 단원 50명이 오로막길 40리 내리막길 40리 팔십리 문경새재 해가 저문다. 님 찾아 가지하니 고향 그림고 고향에 머물자니 님이 그리워 오도 가도 못하겠네. 가도오도 못하겠네. 팔십리 문경새재』를 조용히 부르자, 무대의 불도 꺼졌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현한근 원장은 '어르신들이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흠뻑 빠져 공부하고 익혀, 이렇게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럽다.'면서, '문화원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의 문화감성을 개발하여 더 건강한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영남방송 '오늘은 좋은 날'에서 녹화하였다.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제19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를 지난 7월 10일, 성남시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했다.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 강정일당을 추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애향심과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성남문화원이 매년 주최하는 이 행사는 금년이 19번째로, 명실상부 성남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글짓기 한마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강정일당, 구름, 비 오는 날의 탄천, 바람, 현대인에게 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성남시민과 학생들 3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당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64명에 대한 시상식은 오늘 10월에 있는 <제13회, 강정일당상> 시상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개원 32주년 기념, <성남인물지> 발간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7월 5일 개원 32주년을 기념해, 3년간의 노력으로 집대성한 <성남인물지>를 발간했다. '성남인물지'는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성남에서 활동했던 830여명 인물들의 전기가 수록된 향토사 자료로,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편찬위원들이 다각적인 문헌 조사와 사진촬영, 문종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 자료 입수 및 증언을 통해, 원고 집필, 교정, 감수를 거쳐, 총 830여명이 넘는 성남의 역사 속 인물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완성됐다. 이 책에는 든촌 이집, 송산 조권, 의병장 남삼목, 조선중기 문신 이경류 선생 등 성남 출신으로 종6품 이상의 품계를 받았거나 관직을 가진 인물과 사회에 현저한 분보기가 되는 선조의 발자취가 수록됐다.

한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선조의 눈부신 활동을 밑거름으로 현재의 풍요로운 성남이 만들어진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고장을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문화원은 앞으로 광복 이후 최근까지의 성남지역 인물을 찾아 현대 성남의 인물지 를 만들 계획이다

강남문화원

제12회 대한민국 강남미술대전

강남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GS강남방송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강남미술대전이 열린다. 한국미술문화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미술공모전을 통해 예술적 창작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오는 9월 1일(수)부터 9월 3일(금)까지 신청 받는다.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작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는 강남문화원에 귀속된다. 자세한 문의는 강남문화원 www.sgnc.or.kr으로 하면 된다. 02)554-1234, 3454-1517-9

성남문화원

향토유적 제1호 '강정일당' 추모,
<제19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문화원이모저모 NEWS

정읍문화원

제3회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 성료

동박유학의 비조로 추앙을 받는 고운 최치원선생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 선비문화의 요람인 태산선비문화권을 새롭게 조명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전승보존하고 참신한 선비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진정한 선비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3회 한문경전성독대회가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당초 개최 장소는 무성서원이었으나 비가 내려 칠보초등학교로 옮겨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읍문화원(원장 정창환)이 주최하고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한수)가 주관했으며 전국 7개 시·도에서 500여 명이 참가해서 개인과 단체부로 나누어 예선과 본선을 거쳐 대상과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상, 특별상 등의 입상자를 선발하여 200여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포천문화원

임원선거총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7월 1일 유림회관에서 고문 및 자문위원, 임·회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에서는 제7대 문화원장 및 부원장, 이사 14명, 감사 2명 등 총 18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포천문화원 임원 선출 규칙에 의거 7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임원선거에 대한 진행을 맡았으며, 당일 이준호 위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 투·개표 및 당선자 선포 등 선거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원장에는 현 문화원장인 이만구 원장이 무투표로 재선되었으며, 부원장에는 현 양윤택 부원장이 유임되었다. 이날 이만구 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천하비재하고 여러모로 소양이 부족한 불초 저에게 문화가족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에 대하여 먼저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라고 전제한 후,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따라서 여러분의 기대에 한치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말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거는 선거권자 17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문화원을 위하여 일할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 문화원 회원들의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진일보하였다.

한수이북 문화원장 순회 간담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13일 한수이북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수목원에서 문화원장 순회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각 시·군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하반기 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 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의 문화 정체성 확립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원장님들을 모시고 문화원장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포천에 대하여 좀더 많이 이해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생물 다양성을 지닌 국립수목원의 산림생물표본관과 습지 등을 답사하며, 최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이곳 산림환경의 우수성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체험했다.

제2회 전국 색소폰 경연대회



포천시가 주최하고 포천문화원이 주관한 제2회 아트밸리 색소폰 경연대회가 10일 부터 이틀간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포천아트밸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제주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색소폰 연주자들 약 80여팀 3백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예선을 통과한 36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각자의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이날 본선의 사회를 맡은 탤런트 강석우씨의 색소폰 솜씨를 비롯하여 국내 색소폰 최고실력의 연주자인 김원용, 카페음악의

대모 김란영, 꽃바람 연인의 조승구, pop싱어 이수홍 등 특별출연자들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주말을 맞아 아트밸리를 찾은 관람객들에게도 색다른 문화의 밤을 선사했다.

국내 최초 폐체석장을 친환경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포천아트밸리 색소폰 경연대회는 국내 유일의 색소폰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색소폰 동호인들의 실력 발휘 및 새로운 음악인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의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포천 아트밸리는 매주 월요일(단, 연휴기간의 월요일은 운영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함안문화원

함안의 지명·인물을 조명하는 함안의 지명유래 국역 금라전신록 출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뜻 깊은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지명유래의 편저자인 이원수 함안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과 금라전신록 번역자인 이명성 함안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장성진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한편 이날 함안의 지명유래와 금라전신록의 서평은 창원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우오 교수와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로 있는 허권수 교수가 맡았다. 함안의 지명유래는 1990년 발간되었으나 행정구역 변경사항 반영, 누락되거나 잘못된 기재된 옛 지명에 대해 2년간 현장조사와 문헌 고증 작업을 거쳐 증보판 1500부를 발간됐다.

증보판은 애초 발간된 지명유래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되 사진은 다시 촬영해 편집했고 일일이 현장 조사와 고증을 거쳤다. 함안의 지명유래는 함안의 뿌리를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함안의 가장 오래된 인문지리지인 함주지와 1880년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함안군 총채록과 함께 함안의 기록문화를 받치는 삼발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00부를 발간한 국역 금라전신록은 한문으로 된 금라전신록 책판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번역 출판한 것. 금라전신록은 도지정지방유형문화재 제180호로 1639년경 간송당 조임도 선생이 임진왜란 후 함안의 역대인물의 시문과 행적, 산천풍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모은 것으로 함안의 향토인물사건과 함안의 사회집을 대표하는 저서로 문헌적 가치가 높다.

이 책에는 조임도 선생을 비롯해 왜구를 물리친 이방실 장군, 위화도 회군을 반대한 조순 장군, 조선 조 집현전 직제학을 지낸 어변갑, 생육신 어계 조려, 정유재란 때 순절한 조임도, 조선의 명필 조연 선생 등 총의의 기개와 문필이 높았던 수많은 인물의 행적이 소상히 그려져 있다.

또 사대부의 비명과 묘지, 행장, 제문과 함께 시문집도 실려 있어 향토사료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번 국역판 발간은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함안의 인물을 재조명해서 군민들에게 자긍심과 애郷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라전신록 책판 115장은 조임도 선생이 학문과 저술 활동을 했던

대산면 장암리 합강정사에 보관해 오다 도난 위험이 있어 2009년 4월 함안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조훈래 함안문화원장은 "발간된 책을 기관단체와 군민, 전국문화원, 경향각지의 출향인 등에 배포하여 함안인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이고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문헌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며 이로써 함안의 인물과 역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사무처장 워크숍 개최

지난 7월 9일(금) 13시부터 10일(토) 13시까지 지방문화원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문화원 사업과 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사무국장, 사무처장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정동 사무관, 한국문화원연합회 김이기 사무총장, 장상호 총무국장, 전국 100여개 문화원에서 참여하여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토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난 6월 11일 개원한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자발적으로 참가비 50,000원으로 진행되어 더욱 고무적인 시간이 되었다.

박세규 대전시지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워크숍은 예산운영 부문(송재민 대전 서구 국장) 공모사업 부문(하희숙 경남 남해 국장) 메세나 부문(김대현 서울중구 국장) 사례발표(조준원 전남곡성국장) 등을 다루고 하반기 운영 방향에 관해 토론했었다. 분임토의와 전체 회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7월호 우리문화 기획 기사 중 인식의 전환 'K씨,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다'의 필자의 이름이 잘못 게재되었습니다.

'김민'에서 '이규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으로 바로잡습니다.

우 리 문 화 소 식

NEWS

한국문화원연합회 『2010 지역문화경영과정』 중·고급과정 수강생 모집 7월 30일까지 접수

· 모집개요

구분	내용
교육일시	8월 17일(화) ~ 20일(금) / 3박4일
교육장소	경기도 용인(현대인재개발원)
모집대상	전국 지방문화원 임원 및 직원
모집인원	중급(30명), 고급(20명)
접수마감	7월 15일 ~ 7월 30일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워크숍주제선정(표)
교육목표	중급 기횡력 level up 역량강화 고급 창조력 power up 역량강화
수강료	10만원 (8월6일까지 납부)

※ 신입 원장 및 사무국장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자격요건

교육과정	자격요건 (1가지 이상 해당자)
중급과정	초급과정 이수자, 문화원경력 3년이상, 문화예술 관력학과 전공자
고급과정	중급과정 이수자, 문화원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 관력학과 석사 이상

※ 원장은 위의 조건과 상관 없이 신청가능

· 세부프로그램

구분	중급과정		고급과정	
	강의제목	강사명(소속)	강의제목	강사명(소속)
공통과목	특별초청강연 (문화원을 통한 지역창조)	미정	특별초청강연 (문화원을 통한 지역창조)	미정
	네트워크 프로그램 (핀 / Fun 리더십)	한광일 (한국웃음센터 원장)	네트워크 프로그램 (핀 / Fun 리더십)	한광일 (한국웃음센터 원장)
	프리젠테이션 전략	이용갑(미래경영연구소)	프리젠테이션 전략	이용갑(미래경영연구소)
	시대전략특강 (뉴미디어시대의 문화경영전략)	전수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시대전략특강 (뉴미디어시대의 문화경영전략)	전수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체험① ② ③	연극1(전문예술강사) 숫대 만들기(평택문화원) 연극2(전문예술강사)	연극1(전문예술강사) 숫대 만들기(평택문화원) 연극2(전문예술강사)	
	문화경영을 통한 지역 창조	이흥재 (명지대 겸임교수)	문화인류학 콘서트 (로컬과 글로벌의 만남)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론과목	문화재원 발굴과 활용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화경제학 콘서트 (공공성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강운성 (경원대 경영대학원 교수)
	축제기획과 관리 (사례분석)	윤성진 (㈜주스컴퍼니 예술총감독)	장소마케팅 (국내외 사례)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문화 상상력과 지역창조론 (국내외 사례중심)	안이영노 (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 OX 대표)
	스토리텔링 개발(성공전략)	김공숙(KBS 방송작가)	주제별 세미나(생방향 토론)	각 주제별 컨설턴트
조별워크숍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원 활성화 전략 기획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문화원종합발전계획(안) 기획과정	이흥재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주민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생활문화공동체프로그램 개발	안이영노 (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 OX 대표)
	지역경계를 살리는 지역문화축제 기획하기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대표)	지역문화역사지원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중, 고급과정 조별 워크숍 결과 종합발표			

※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수강생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워크숍주제선정(표) * 홈페이지 양식다운로드 가능
* 3×4cm사진(1장), 교육기간 담당자에게 제출/수료증제작
- 수강생 명단 발표 | 8월 10일(화) 연합회 홈페이지
- 접수방법 | 이메일 looksong@kccf.or.kr 팩스 02-704-2377
홈페이지 <http://www.kccf.or.kr>

· 특 전

- 수강인원 20%(우수수료자) 차기년도 해외 연수 제공
- 고급과정 우수수료자는 자문위원 및 컨설턴트로 활용(연합회 전문가 뱅크 등록)

· 평가방법

- 팀평가 및 개별평가 병행 *시험평가 없음

· 참고사항

- 교육장소 | * <http://www.hdlc.co.kr>
- 교통편 | 서울버스 이용(서울역--용인(현대인재개발원))
* 정소 및 출발시간 추후 공지

신임 원장



**대구남구문화원장
이원부(李源富)**

대한민국 명장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 부회장 역임
계명문화대학 유아교구디자인과 교수
2010. 6. 8 취임



**대전 유성문화원장
최재각(崔在珢)**

유성청년회의소(JCI회장)
(주)대덕밸리 이사
유성문화원 부원장(현)
2010. 7. 15 취임



**경기 광주문화원장
남재호(南載昊)**

광주시민정학회 이사장
광주문화원, 초대감사, 지문위원 역임
시인, 수필가임
2010. 7. 1 취임



**강원 태백문화원장
김강산(金剛山)**

강원문화재 전문위원
한국민속학회 회원
태백문화원 6대 원장
2010. 6. 14 취임



**강원 횡성문화원장
김광수(金廣洙)**

횡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위원
강원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부회장
2006. 7. 8 취임, 재선임



**충남 논산문화원장
류제협(柳濟俠)**

충남문화관광해설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논산문화원 이사, 향토사연구위원
2010. 8. 1 취임



**전남 담양문화원장
김귀수(金貴洙)**

담양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 담양문화원 사무국장
국방부장관 표창장(1982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1999년)



**경북 상주문화원장
김철수(金鐵洙)**

경상대 대학원(농학박사)
전)상주대 2대 총장
현)경북대 이공대 교수
2010. 7. 21 취임

원 장 동 정 NEWS

퇴임 원장



**대구남구문화원장
이재녕(李宰寧)**

서울시공무원 임용, 서울시립박물관장 역임
서대문구 부구청장 역임
용산구 부구청장 역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역임



**대전 유성문화원장
한근수(韓近洙)**

유성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주)대전모젤대표이사



**경기 광주문화원장
이상복(李常福)**

국제라이온스클럽 309-G지구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사)한국양묘협회장



**강원 태백문화원장
권영한(權寧韓)**

극단 표현 대표, 태백 합창단 단장
도계 JC 회장
강원도 도정상담위원



**충남 논산문화원장
박응진(朴應辰)**

논산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조정위원회 자문위원



**전남 담양문화원장
전이규(全二奎)**

담양읍장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경북 상주문화원장
신현수(申鉉秀)**

중앙대학교 약학과 졸업
상주문화원 부원장
상주풍물단 창단 및 운영
상주시사 발간

지역문화를 위해
헌신하신 뒷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제25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접수기간: 8.1 ▶ 8.31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민선위원회
 한국문화진흥위원회

전국 향토문화공모전

국내 유일한 25년 전통의 향토사 학술연구 공모전

2010 제25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공모 요강

공모 부문 및 소재

- **공모부문**
 - 향토문화 연구부문(논문)
 - 향토문화 조사부문(자료)
 - 향토문화민족문화부문(영상) - 디큐멘터리, 다큐영화에 한정
- **공모주제**
 - 향토문화 연구부문(논문): 역사, 민속, 전통문화 등
 - 향토문화 조사부문(자료): 역사, 민속, 전통문화 등
 - 향토문화민족문화부문(영상): 지역의 역사, 민속, 전통문화 및 역사 또는 전통생활문화

응모 마감 및 수상액 발표

- **접수기간: 2010년 8월 1일 ~ 31일**
- **국민초부분 예비심사**
 - 예비심사 접수: 8월 17일(월) ~ 21일(금)
 - 발표: 8월 21일(수) 오후 5시에 향토사 학회(제25회)에서
 - 제출서류: 개인/단체/회사, 촬영계획서, 시놉시스
 - * 선정된 팀은 본 접수 기간 내에 영상작품 제출
- **수상액 산정방법: 2010년 9월 경**

응모지역

- **지원지역:** 향토문화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학생, 2인 이상의 공동연구가능, 역사학대자 응모가능
- **지원제한:** 본 공모전 대상 수상자

공모분량 및 작성법

- **향토사연구부문(논문), 향토사조사부문(자료)**
 - 분량: A4, 10장~20장(논의 진정성, 발표요인 차등은 기금적 배제)
 - 작성: 양장(한 논문 제제에 맞게 작성/사본, 본문, 결말)
- **향토사민족문화부문(영상)**
 - 분량: 30~60초 이내
 - 규격: 35mm/16mm 필름 및 HD, HDM, DV로 촬영하여 DVD로 제출, 예비심사시 제출한 시놉시스도 함께 제출

제출 서류 및 접수

- **제출 서류**
 - CD(면도), 출력물 2부(원고), 이력서(서신부와) 1부, DVD(영상)
 - *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수처**
 - 위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상우빌딩 1202호
 - 제25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담당자(이) 문의: 02) 704-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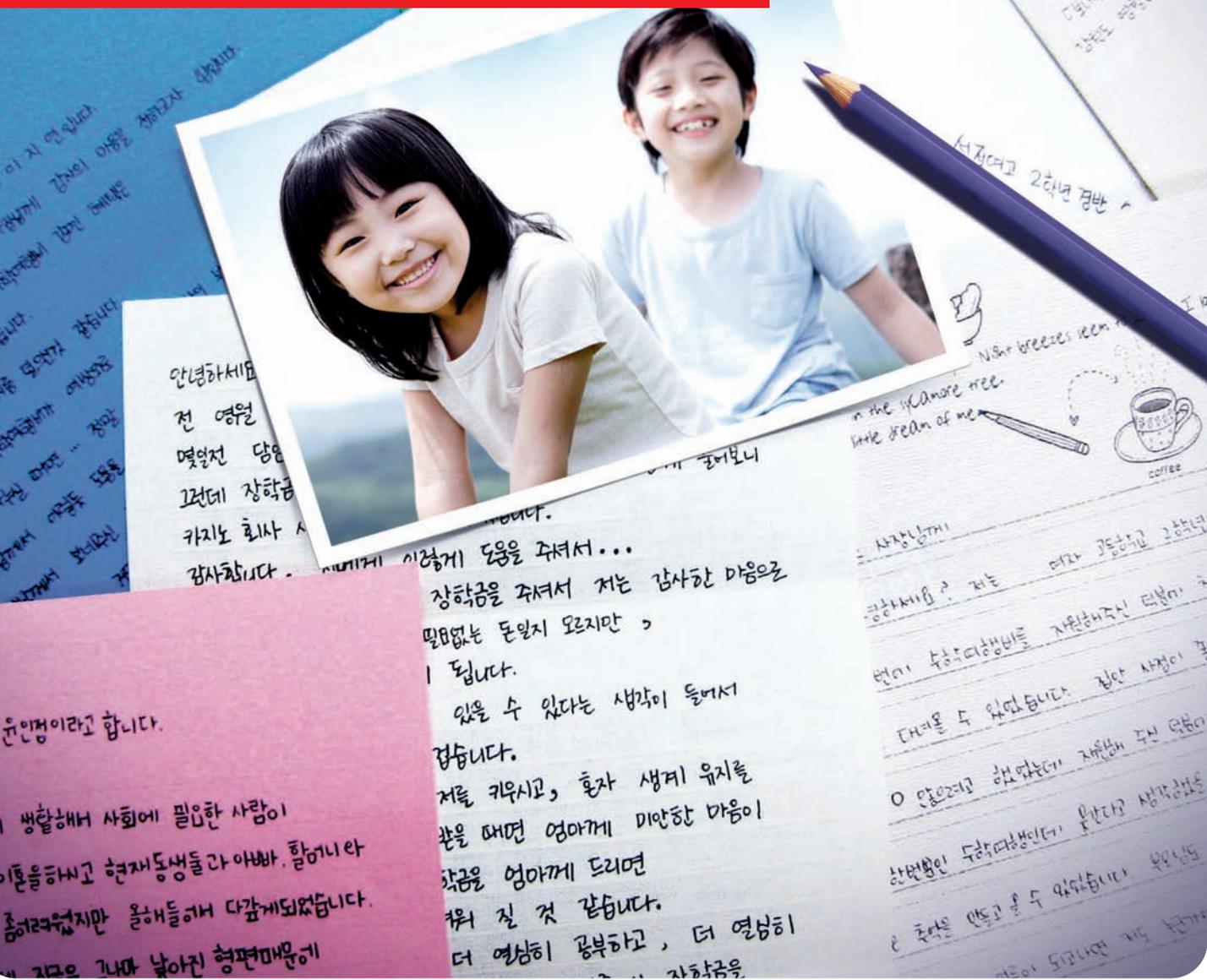
시상 내역

구분	시 상	상 금	비 고
부문 으뜸	대상(국무총리상)	500	1인
향토문화 연구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50	1인
	우수상(서울특별시교육감상)	250	1인
	특별상(국립한글박물관상)	150	1인
향토문화 조사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50	1인
지표부문	최우수상(한국문화재단이사장상)	250	1인
향토문화 민족문화부문	최우수상(한국문화재단이사장상)	250	1인
합계		2,200	8

유의 사항(다른 내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은 부록도 참조함

- 수상에 따라 선정되는 상금과 표창, 표창장은 저출판권 재출판권
- 향토문화 연구부문(논문)은 1인 1편으로 제출함
- 다른 시군구는 본공모전에 응모하지, 외부 시상금 특례는 없음
- 사진 촬영권 양양(연)의 내용은 제발(가)가, 그와 인접한 장구
- 1인 1편에 한하여 제출하며, 기타당첨 유무 없음
- 본 공모전에 참가한 지역별(시/군/구)별 최우수상 수상자 10명 발표함
- 본 공모전에 참여한 지역별(시/군/구)별 최우수상 수상자 10명 발표함
- 2010년 9월 15일(수)에 발표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장학금도 수여함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인인병이라고 합니다.
생활습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이혼을 하시고 현재 동생들과 아빠, 할머니와
좀 어려웠지만 용해들이며 다같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에 기나래 낱아진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주셔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필요없는 돈일지 모르지만 >
이 됩니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습니다.
저를 키우시고, 혼자 생계 유지를
할 때면 엄마께 미안한 마음이
각금을 엄마께 드리면
취 질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장학금을

사랑스럽게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 3등수준 2학년
번이 수능수험생입니다. 자연과학인 특별이
대의를 두었습니다. 잘라 사정이 꼭
O 많으려고 했었는데 자연해 두번 덕분에
한번뿐인 수능수험생인데 용감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은 죽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용감한



폐광지역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하이원은 행복디딤돌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걸쳐 있으며 과거 주요한 에너지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